

▶ 장헌일 의원 참고자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사례 중심으로 —

상무 2동 장헌일 의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제1절 커뮤니티센터의 역할

1. 커뮤니티 정의
2. 커뮤니티센터의 외국사례
3. 커뮤니티센터의 역할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

1. 주민자치센터 의의와 기능
2. 주민자치센터 시설
3.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

제3장 서구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과 수요조사분석

제1절 서구 주민자치센터 현황

1. 서구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
2. 서구 주민자치센터 추진과 프로그램운영

제2절 서구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수요조사 분석

1. 조사 목적과 내용
2. 조사의 설계 및 진행
3. 조사결과

제4장 서구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점과 대책

제1절 서구 주민자치센터운영의 문제점

1. 운영관리 계획수립 미비 문제점
2. 기초수요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제2절 서구 주민자치센터운영의 정책대안

1. 서구문화센터를 중앙 커뮤니티센터로 설정
2. 서구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대
3. 자생적 주민자치조직 활용
4. 시범 동(상무2동) 주민자치센터 모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국제화, 민주화, 정보화, 전문화 등이 확대되어 가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일반행정 위주에서 생활민원, 복지기능 중심으로의 새로운 행정환경분야가 급변하는 가운데 '99년 7월부터 전국 278개 동을 대상으로 동사무소를 문화, 복지센터 기능을 갖춘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사업을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한국의 지방행정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이제까지 읍·면·동사무소는 국가의 시책을 주민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주도하여 왔기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과는 멀리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기능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문화, 복지, 여가기능은 물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지역사회 진흥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시범실시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협동과 화합을 다지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각종 프로그램 개발, 주민의 효과적인 참여방안, 운영재원 확보 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있다. 이러한 시범시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도출과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지역 실정과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정도가 자치센터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므로 시설, 프로그램, 사업운영 등에 있어서 철저히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의 일상생활문화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제도로 단순하게 시설만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주민 생활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로 이 제도를 보완, 개선해 가야한다.

본고에서는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커뮤니티 의식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수요조사를 통해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각 동별로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주변 공공시설과의 상호 연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특성 및 기능을 분류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모형 개발과 구체적인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여

제2장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및 외국의 선진사례를 살펴보며

제3장 커뮤니티센터의 행정의 역할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서구 주민자치센터 추진 현황과 수요조사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 기능과 시설 그리고 설치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서구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또한 서구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한 후

제5장 본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을 요약하였다.

제2장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제1절 커뮤니티센터의 역할

1. 커뮤니티 정의

커뮤니티(community)는 지역사회, 공동체로 사용되는데 라틴어 어원인 communis는 com(함께)과 munis(봉사하는 일)이라는 합성어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의 매킨버(R.H.Maclver)는 공동체의식 개념을 사용하면서 커뮤니티는 지역공동체 토대가 되는 지역성(locality)과 공동체의식(community sentiment)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지역성은 사회유사성, 공통된 사회적 표현, 공통된 전통 습관, 공속감을 말하고 공동체의식은 우리 의식, 역할의식, 의존의식 등을 말하고 있다.(Maclver, R. H, 1924)

또한 힐러리(G. A. Hillery, Jr)는 1955년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를 분류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 지역성, 공동연대 등 3가지 요소를 커뮤니티 요소로 언급하였다. (Hillery G. A. Jr, 1955. 6 : 118) 또 다른 시각으로 칼혼(C. J. Calhoun)은 커뮤니티를 사회적 연결망으로서의 공동체(personal community as a social network)와 공간적 단위로서의 지역사회(local community) 두가지를 모두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커뮤니티 개념을 도덕적으로 평가되는 생활방식이라는 뜻과 사회관계의 물리적 배경(장소)라는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Calhoun, C. J, 1980)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생활현장인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지리성, 공간성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6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커뮤니티의 본질을 공간적인 아닌 사회적인 것으로 보고 그 정의를 이웃이나 혈연적 유대의 범위를 뛰어 넘은 광범위하고 유연한 결합으로 보는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다.(한국사회사연구회, 1991 : 196)

한편 일본자치성 국민 생활심의조사회 커뮤니티 문제 소위원회 보고서에서 松原교수는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의 생활의 장에서 지역사회의 주체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자각한 주민이 지역에의 귀속의식, 공동의 이해, 역할인식 등을 통하여 공동의 행동을 지향하려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연대감을 말하며 구성원들의 생활환경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사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고서 전개해 가는 지역집단 활동이 전형적인 커뮤니티 발현 현상이라 정의를 내렸다.(松原治郎, 1975 : 26~28)

최근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 학자들 역시 이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다.

권순복 교수는 커뮤니티를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연대의식 속에서 공통적인 가치와 이익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서로 분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권순복, 1989 : 9)

강형기 교수는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연대의식 속에서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제도를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하에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을 정의하였고(강형기, 1998 : 4), 이달곤 교수는 커뮤니티란 지역을 기본단위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근린집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달곤, 1995)

이상의 커뮤니티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할 때 '커뮤니티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연대의식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갖고서 공공선에 대한 가치와 이익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성립하려면 동일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주민조직)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상에 서로 상호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생활상의 상

호관련 활동을 일정한 지역에서 완수하려 할 때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간에 합의, 행동의 공통성을 만들어 낼 가능성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커뮤니티 형성에 의해 나타나는 커뮤니티의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커뮤니티의식 즉, 공동체의식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민간에 동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사촌」이라는 공속의식 즉 우리 의식(We-feeling) 서로 협력하면서 생활해 가려는 상호 의존의식(dependency-feeling) 및 공존의식 또한 동정심(sympathy)이 있고, 상호협력중에 구성원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역할의식(Role-feeling)을 갖는 것이다. 실제 개인의 이익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조화를 이룬다는 아담스미스(A. Smith)의 자유주의이론은 공동체의식의 바탕이 되는 동정심(sympathy)을 전제로 한 것이다.(참여사회연구소, 1997 : 210~211)

그러므로 커뮤니티는 시민 상호간에 신뢰관계를 증폭시키는 장이며 시민으로서의 주체성과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장이며,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근거로 지역의 문제에 관심 갖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의 창조와 새로운 도시생활의 질서를 형성하는 장이다. 특히 주민참여에 의한 시설개발 커뮤니티 기본원칙이 주민에 의한 「자주적 참여, 자주적 기획 그리고 자주적 운영」으로 시설 구상에서 전 영역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커뮤니티는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립하는 장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형성은 시민참여의 기반이 되어 시민주체 도시 공동체를 건설하는 출발점이다.

2. 커뮤니티센터의 외국사례

1) 일본의 기초지역사회 행정 운영으로서 공민관

광대한 기초단체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밑에 행정보조단위(Sub-municipal unit)를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경우는 군·구 밑에 읍·면과 리·동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지방의 정책결정과 활동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사무에 대한 토의 장소제공(공청회, 공개민원처리, 설명회 장소)과 사회적 응집성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주민의 자조적인 노력에 의해 지역사회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영국이 최근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시행하면서 과거의 교구(Parish)를 이러한 하부단위로 활용하였다. 지역공동체의식 형식과 주민자치의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일본의 공민관과 자치회(정회) 사례를 통해 그 운영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민관(公民館)의 역사는 1946년 「공민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라는 문부차관의 통첩으로 발족하여 1947년 교육기본법과 1949년 사회교육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초창기(1950년 이전)에는 시민의 자기교육, 주체적 학습장이기보다는 관청에 의한 공민으로서의 인격 도야, 지도, 훈련의 장이었고 빈곤, 실업, 노동, 의료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행정을 대행하였다. 확산기(1950년 대)에는 1개 시정촌 당 평균 10개의 공민관이 설치되었고 행정기관에 의해 설치된 공립보다는 自治會(町會) 등에 의한 분관과 공민관과 유사시설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후에 정착기(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촌 통합과 더불어 규모가 적은 공민관과 분관이 통폐합되고 시설, 건물의 고급화, 직원의 전문화, 관리체계의 강화가 추진되고 사용료도 대폭인상하였다. 이때 새로운 공민관상이 정립되었는데, 공민관은 주민이 자유롭게 모이는 장소와 주민의 집단활동의 거점이며, 주민에 의한 「우리대학」과 주민을 위한 문화창조 광장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았다.

공민관은 사회교육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시정촌)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적 사회교육기관이다. 이는 시정촌 내의 청소년, 성인, 주부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문화관련 각종사업시행, 주민교양 및 의식의 향상, 건강증진, 생활문화진흥,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민관의 기능으로 공민관은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 학습, 문화 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학급 등 각종, 단체, 기관 등의 연락지원 및 주민집회나 공공목적에 시설을 제공하고 정기강좌, 토론회, 강습회, 강연회, 전시회, 체육, 레크레이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주민교육, 생활문화진흥, 사회복지 증진 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의 연령계층,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분야별로 주민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지도자 양성, 예절교실운영 서예교실과 취미교실운영 그리고 스포츠 클럽운영 및 방학 영화교실이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미클럽과 자원봉사클럽이 운영되어 주부를 대상으로 교양강좌, 어머니교실, 커뮤니티 지도자 양성, 청소년 문화연구 클럽, 봉사클럽, 취미클럽, 알뜰살림 클럽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년을 대상으로는 교양강좌, 커뮤니티 애호회 운영 취미활동과 청소년선도 등을 운영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노인기원 장기방, 노인 스포츠 및 취미클럽, 할아버지와 할머니 대화마당, 건강관리 클럽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는 커뮤니티 자원봉사반을 운영하여 신문을 발간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일본 공민관의 운영방향으로는 2차대전 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사회 교육 시설로 민주적인 사회교육기관, 자치향상을 위한 사교의장, 민주시민의 장, 민주시민 양성, 문화적 지식과 교양을 학습하는 장소,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심 역할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1980년대 이후 공민관의 전환기에는 행정 개혁 교육개혁으로 인해 방향 전환하여 공민관을 민영화, 민간위탁, 비상근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공민관의 운영기준을 보면 대상구역은 일반적으로 시의 경우 중학교의 통학 구역, 정촌에서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고려하는 것이 적당하고 시가지의 경우 인구밀도나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중학교의 통학구역보다 좁은 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민관을 중심으로 대상구역 면적이 16km²이내일 때 이용상의 효율이 가장 높다.

공민관의 조직 대도시의 경우 1구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명 이내의 전담직원이 시 공무원의 자격으로 파견되어 있다. 직원들은 사회교육 관련 전공졸업자 또는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공민관장과 직원은 교육장의 추천으로 시정촌 교육위원회에서 임명된다. 공민관에는 10명 이내의 공선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심의회」를 두어 관장의 임명, 운영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관내 학교장, 구장, 자치회(정회)대표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등이 포함된다.

시설 측면에 있어서는 공민관의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전용면적은 330m²이상이지만 이용자의 수의 증가에 따라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당의 면적은 지역 인구를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나 근처에 학교 강당, 공회당, 체육관 등의 시설이 있는 곳에는 이들 시설의 이용현황, 시설현황을 감안하여 면적을 정한다. 공민관에 들어 가야 할 시설은 회의 및 집회에 필요한 강당이나 회의실, 자료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도서실, 아동실, 전시실이 있어야 한다.

학습에 필요한 시설로 강의실, 실험학습실이 필요하다. 이외에 체육관이나 레크레이션 광장, 공원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배려한다. 면적이 좁은 공민관의 경우 복도를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강의실과 아동실을 겸하게 하고 강당에 칸막이를 하여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상의 고려를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공민관 프로그램은 공민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민관 자체 기획사업인 강습회나, 강좌, 전시회, 공연이고 둘째, 각종 단체에 장소의 제공과 상담, 정보제공 셋째, 도서자료의 구비 및 이용자에게 자료 및 정보제공 서비스가 있다. 공민관은 주민 동호인 모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장소제공은 물론 활동에 필요한 약간의 지원금을 보조하기도 한다.

이외 공민관에서 동호인 모임을 이끌어가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강좌를 하고 있다. 공민관은 야간 10시까지 개관하고 토요일, 일요일 개관하는 대신에 월요일에 휴관을 하여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공민관의 강화는 미술, 공예, 체육, 기악 등을 배우는 실기강좌와 이론강좌가 있으며 가정생활강좌, 사회문제강좌, 역사강좌 등이 있다. 사례조사 대상 공민관 모두 여성학 강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공공사회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재해, 환경, 사회문제에 관련된 강좌를 한다.

강좌 외 행사로 시민친목 운동대회, 공민관문화제, 공민관 이용자 간담회, 아동영화 감상회를 실시한다.

2)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공민관의 역할변화

미국에 있어 도시자치의 기원은 뉴잉글랜드 지방의 마을회의(the town-meeting)와 같은 체제를 통해서 가정 및 사회생활에 충실하고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의 정치과정 및 정책과정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시민문화를 발전(임승빈, 1999 : 25)시켰던 자주적 주민자치전통에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도시자치를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초에 실현된 보통선거제도와 거기에 따르는 도시정당조직의 발달에서 시작되었다.

그 반면 19세기의 후반에 이르자 「정당기구」(political machine)에 의한 시정지배가 대도시에 있어서 일반화하고 시정의 부패를 하나의 구실로 한 주의회에 의해 시정개입이 심하게 되어 시정의 암흑시대를 불러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전세기 말부터 금세기 초두에 걸쳐 시정 개혁운동이 전개되어지고 드디어 현대 미국의 도시자치에 기본 구조가 확립되었다. 직접 참정제도, 시민단체의 결합, 도시계획의 운동, 시민참가방식도 모든 시정개혁운동의 소산이었다. 이 시정개혁운동은 정당기구에 의한 시정지배체제의 여러 면에서 도전했다. 그것은 정당기구가 이민층을 조직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정당기구의 권외에 있으면서 이 때문에 시정에서 유리되어 있던 부유층 및 중간층의 시민이 점차로 지방자치에 복귀하여 시민자치를 확립하려고 하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공민관 활동이 민간 문화센터(culture center)의 취미 교육과정 제공 중심으로 변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이 전의 공민관 활동은 청년, 부인, 노인 학급 등 극히 계몽적이고 교육적인 것이 주된 것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대의 명분으로 각 분야의 리더자 양성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전되고 고학력화 됨에 따라 지역 내 생산활동하는 젊은이들은 타 지역으로 활동의장을 옮기게 되자 먼저 청년학급이 해체되어 버렸다.

아직 부인과 노인대상학교는 존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TV등 매스컴의 발달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민관은 문화센터화 되는 경향이 현저하여 공예와 분재 합창과 민요 그리고 고전문학 등 생활활동과 생산활동과는 전혀 관계 없는 개인적인 취미 교양 중심이 주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민관은 본래의 기능인 사회교육시설이 되어야 한다.

사회교육법 제30조는 공민관은 「주민의 교양의 향상, 건강증진 정서문화를 꾀하고 생활문화의 진흥, 사회복지의 증진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1항은 「양식 있는 공민이 되는데 필요한 정치적 교양은 교육상 이것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공민이란 본래 공민권(선거권·피선거권인 참정권)을 갖는 주민이고 「공민관」에 대해서 규정한 사회교육법이 신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공포 시행된 1948년의 다음해에 제정된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당시 신민교육을 철저히 주입시켜 가르친 결과 의존형 주민을 가능한 공공의식을 지닌 주체적 참가형 주민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민주 정치와 지방자치도 실패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전한 「공민」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갖고서 설치한 것이 공민관이다. 그러기 때문에 양식 있는 공민이 되는데 필요한 정치적 교양을 갖게

하고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리더자를 양성하는 것이 공민관의 본래의 역할이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공민관이 해야 할 역할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시야를 갖게하고 사회인으로서 자각을 높이고 지역주민으로서 연대감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공동체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서로 지역주민들간의 동류의식을 충실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3) 자치회(정회)제도(自治會(町會) 制度)

자치회(정회)의 성격으로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자치적 친목조직, 임의단체 성격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지닌 단체로 등록 할 수 있게 되었고 회관 등 상당한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회(정회)의 역사는 1500년대 풍신수길시대에 주민관리 체제의 일환으로 만들어져서 관동대지진(1932년)이후에 전시동원체제, 지역방위체제로 조직화되었다. 1947년 군국주의 유지를 위한 지역조직으로 간주하여 미군정의 해체 명령에 따라 연락위원, 홍보위원회, 위생조합 등의 형식으로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1952년 일·미 강화조약체결 이후 전국적으로 부활하였다. 1970년대 이후 자치회에 대한 반발로 마치쭈쿠리(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쭈쿠리(지역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확산으로 활동 및 위상이 약화되다가 1990년대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자치회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고 각종 지원정책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자치회(정회)의 조직은 회장(1명), 회계, 감사, 간사 등 10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되고 회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원칙적으로 가입단위는 세대이고 가입은 자유이나 대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전국민의 90%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기업회원, 법인체(변호사 사무소)등도 가입이 가능하고 규모는 하나의 자치회(정회)에 50세대~200세대가 가입하고 있고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동경도 23개 특별구내에 4302개의 자치회가 있고 그 중 103개가 법인격을 갖추고 있다.

끝으로 자치회(정회)의 기능은 주요기능은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행정 보조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전자는 주민복지증진, 주민상호 연락 및 친목도모사업으로 경조사업을 전개하여 정회 회관의 관리운영, 문화스포츠, 교통안전 및 방범 방제 및 재해구조, 공해방지, 보건위생, 간이보험, 축제 등의 개최, 기타 녹화사업, 폐품수집, 유치원 등을 경영하여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보조기능으로 구와의 연락, 도 및 구의 각종위원회에 참여하고 구에 주민의 진정, 요망사항을 전달하고 주민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구청 등 자치단체와 경시청, 소방청 등 특별행정 기관으로부터 수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4) 독일 「공화당」 제도

독일 「공화당」 제도는 1973년 전국적으로 단행된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어 일선지역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화당 장소는 과거 게마인데(Gemeinde)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을 사용하며 조직은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한 대표자와 지역출신 의원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화당의 대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 지역의 명망가이며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간혹 지역출신인 통합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를 겸하기도 한다. 공화당의 기능은 행정과 민원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대학 기능과 생활체육단체, 취미단체, 로타리클럽 등의 지역단체가 중심이 되는 각종 문화 행사기능, 주민자치 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화당 운영 재원은 자체 재원과 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 재원은 공화당의 주민 대학 프로그램 수강료와 찬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보다 확대된 의미로 독일 「사회문화센터」 제도가 있다. 이제도는 70년대와 80년대 초에 사회문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 활성화되면서 동호인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유한회사, 기초자치단체와 복지단체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사례가 많다. 사회문화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만남의 기회 제공과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 등을 유도한다. 재정은 기부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기초자치 단체에서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중심의 문화교육 모델이 되고 있다.

3. 커뮤니티센터의 역할

커뮤니티센터는 그 기본 취지가 주민 참여에 의한 자주관리에 있고 센터의 주역도 주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커뮤니티센터 설치 당초의 경위에서부터 행정측이 주도하고 행정의 보조단위인 동별로 그 사무소를 기반으로 하여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순수한 커뮤니티 사무이외에 민원행정등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의 관여는 필연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센터가 가지는 여러 기능 중에서 사회교육적 기능을 중시해야 하는데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행정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커뮤니티가 파괴되었고 자생적인 주민조직도 해체되어 버렸다.

향후 주민의 자주적인 공공단체인 주민협의회가 성숙될 때까지는 행정주도의 주민참여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주도형에서 순수한 커뮤니티 활동만은 주민조직이 주체적으로 관장하여야 하고 청사 비품 및 회계관리 민원발급 및 행정정보 제공 및 기타 행정적 지원 기능은 커뮤니티센터에 파견한 공무원이 담당하고 그 이외의 활동과 운영은 자원봉사자인 주민이 담당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최소한 그 공적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공시설과의 조정, 효율적인 건물설계 등에 관한 지도·조언, 장래전망을 통한 판단, 새로운 사업계획의 제안, 장애자에 대한 배려, 주민들의 불만 의견 접수 처리, 주민간의 대립조정,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락 조정, 커뮤니티에 관한 주민의 전체적 의견 파악, 주민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커뮤니티센터의 계층구조측면에서 살펴볼 때 커뮤니티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진 각동(지구별 커뮤니티센터)으로 하고 전지역을 통합한 중핵적 시설로서 중앙커뮤니티센터를 동시에 설치하는 2중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이곳 중앙커뮤니티센터에서는 교육문화, 예술, 후생복지, 스포츠레크레이션 등의 기능을 전지역에 지원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와 함께 도서관, 문화회관, 체육관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동의 주민자치센터도 역시 주위의 공공시설인 사회복지관, 학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등과 함께 연계하여 각종 공유하는 시설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주민자치센터 의의와 역할

1. 주민자치센터의 의의와 기능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는 학문적이나 행정적으로 정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서구의 커뮤니티센터(communitiy center)나 일본의 공민관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로 주민참여에 의하여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이 된다.(행정자치부 1999, 9 : 9)

즉 주민자치센터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공통된 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하는 지역주민들의 활동의 장이며, 민원행정처리, 생활정보획득, 여가선용을 위한 주민의 종합적인 생활공간을 의미한다.(광주시 서구, 1999. 3)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는 중앙집권적 국민 국가의 형성이전 전근대적인 촌락공동체의 자족적이며, 자기 완결적인 지역통치와 관리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선지방자치, 후중앙정부’로의 발전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자기 고장과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중심장소로 오랜 전통을 유지하여 왔다.(광주.전남행정학회, 1999)

그러나 19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후 도시화의 급격한 확산과 산업도시의 팽창은 전통적인 촌락,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19세기 사회사상가들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얻은 것은 개인의 자유, 기계생산이었지만 잃은 것은 공동체의 삶과 형제애라고 개탄하였다.(신용하, 1985 : 12)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재구조화와 새로운 근린관계의 회복과 구축을 통한 공동체의 부활은 19세기 이후 사회사상가들의 대표적인 이상 이었다.(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7)

이러한 흐름을 도시에 적용한 것이 유토피아 도시사상이며, 대표적인 이론으로 하워드(E.Howard)의 전원도시론과 페리(C.Perry)의 근린주구(近隣住區)개념이다.

특히 페리(C.Perry)는 미국의 정치활동의 민주화와 활력을 공동체를 통해 회복하고자 정착주택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을 전개하여 근린주구단위에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였다.

그 외 커뮤니티센터 구상은 과거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근린주구의 정신적, 문화적 주민생활의 중심이 되었다.(L.Mumford, 1961 : 500~501)

페리(C.Perry)의 도시공동체를 회복하여 형제애의 복원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신은 오늘날 도시계획에서 생활권의 원리로 확대, 발전되어 실천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센터는 자주, 우애, 협동 그리고 공공심을 지닌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민자치의 근거이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중심지로 주민자치 공동체를 구현하는 주민의 사랑방이 되며, 현재의 동사무가 기존의 민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활용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자치의 원리와 그 정신을 실천하게 한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민주시민을 교육시키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NGO 뿐만아니라 각 언론사의 문화센터, 종교단체, 복지관, 백화점 등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광명시는 아예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김광식, 1999 : 169)

결국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역주민간의 교류와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간의 공동체의식 함양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공공선에 대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공심의 역할의식을 갖게하는 시민교육과 이러한 사회교육기능과 함께 도시민들의 소외와 개별화, 익명성(匿名性)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

2. 주민자치센터 시설

행정은 커뮤니티 형성을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시민 자신이 근린감각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화, 개방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시책으로서 기계적 상명하달식을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표 1>의 구성 배치를 통해 커뮤니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표 1〉 커뮤니티 시설

행정 시설	시 청 · 구 청
공 공 시설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공중전화
교 육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어린이회관
문 화 시설	회의실, 강의실,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문화센터, 박물관, 연수실
체 육 시설	운동장, 체육관, 풀장, 테니스코트 등
복 지 시설	탁아소, 복지회관, 노인정, 탁노소, 여성회관
광 장 시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시민공원, 소공원
집 회 시설	시민회관, 마을회관, 집회장소
교 통 시설	도로, 교통안전시설, 가로등, 화단

이러한 커뮤니티시설 네트워크를 계획적으로 확충해가면서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을 세우고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면서 생활환경개선(청소, 공해제거, 환경보호), 지역 안전진단 활동, 사회복지활동(독거노인 방문, 자원봉사활동), 소비자 운동(물물교환, 일용품 공동구입), 생활 안전의 확보(아동교통안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 문화활동(요리교실, 취미활동, 학습활동),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 축제 등 행사개최, 각종 단체활동(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활동), 행정참여활동, 생활정보교환 활동 등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커뮤니티 시설이다.

3. 주민자치센터 발전방향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미래의 희망찬 세상은 주민생활의 기초단위가 되는 지역공동체(community)에 초점을 맞춘 '건강한 공동체(healthy community)' 또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sustainable community)'라는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주만나 대화하고 즐기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이웃동네와 같은 소규모의 이웃 공동체에서부터 밝은 희망을 찾고자 하는 기대와 관심이 실천과 운동으로 변화되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공동체는 정부와 기업 등이 간섭하고 지시해서 형성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되는 NGO, NPO 및 지역사회단체(CBO)등이 주체가 되어 새롭고 인간적이며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기드론(Gidron)에 의하면 정부와 NGO 간의 네트워크 관계는 재정주체(finance)와 서비스공급자(service provision)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네가지로 나누어 진다(Gidron & Salamon, 1992 : 16~20)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부주도형, NGO주도형, 중첩형, 상호협동형이다. 주민자치센터 발전방향 관점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가 초기에 설립하여 정착될 때까지는 상호협동형 모델로 재정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공급은 NGO가 실시하는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가 필요하며, 중간과정은 NGO주도형으로 전환하여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한 재정과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시민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 최종단계에서는 NGO는 지역주민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의식을 갖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이러한 운영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도 새롭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공동체 운동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실험해온 지역화폐운동(LETS)과 같은 새로운 공동체 모델이 송파구, 서초구, 인천시 등 지역에서 도입되어 지역주민들이 금전거래 대신 상부상조와 같은 자원봉사 공적부조식의 현대적 의미의 '품앗이'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영역의 지역공동체 운동은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진행되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더욱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이 때문에 공공영역은 물론 정부차원에 까지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제1단계 전환기(민관공조형 주민공동체)를 거쳐 제2단계 완성기(순수민간주도형 주민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자치행정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사실 주민자치와 시민참여정치는 캐나다의 정치학자인 맥퍼슨(Macpherson, 1977)이 그 개념과 이론을 정립한 후 수많은 학자와 NGO들에 의해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광식, 1995 : 45~54) 즉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 NGO 참여 등은 주민공동체의 성숙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가장 기초적인 공간의 중심점이 주민자치센터이다.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동의 기능전환으로 선진사회에서 말하는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이며, 주민자치센터인 민관공조체제를 갖는 파트너십센터로 발전시킬 새로운 기본틀 형성과 발전 전략 및 실행운영프로그램을 개발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대비한 주민의 창의력 개발과 다양한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정보행정 전산화로 인해 문화, 복지, 정보 중심의 행정수요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작고 효율적이며 주민자치 중심의 지방행정 변혁이 요구되며, 도시화로 인한 인간소외, 고립 등 개인주의가 날로 팽배해 가는 현시대를 진단하고 이웃과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주민사랑방 개설, 취미와 건강 그리고 문화공간의 역할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과 생활정보제공,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등의 복지공간 그리고 장애인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문제 해결 중심의 다양한 사회복지의 공간을 설치할 필요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가를 배출하는 시민참여 사회를 유도하여, 주민 모두가 서로 나누는 삶을 통해 풍부한 지역공동체(communitiy)의식형성으로 주민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치센터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공동체자산동원이론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공동체(communitiy) 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 연구가 진행중이다.

대표적 연구작업으로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부설정책연구소팀이 개발한 새로운 지역사회 자산동원(communitiy assets mobilization)모델을 통해 살펴본다. 이 연구팀의 크레츠만(J.P.Kretzman)과 맥나이트(J.L.Mcknight)교수는 연구결과를 「안으로부터 밖으로 지역사회 건설하기 : 지역사회 자산을 찾아내 동원하는 해법」(1993) 단행본을 통해 미국 뿐만아니라 유럽의 여러 지역사회기관들이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의 교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크레츠만과 맥나이트는 먼저 전통적인 '욕구충족'모델이 갖는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산동원'모델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욕구충족모델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개개인들이 당면한 무수한 취약점을 지적하고 각각의 대처방안을 개별적이고 기능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만성적 욕구는 거의 충족될 수 없고 새롭고 다

양한 사회문화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욕구가 날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1980년대 미국의 많은 지역사회에서 매년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만 비행청소년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90년대 '자산동원'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커뮤니티 개발의 전략이 통용되면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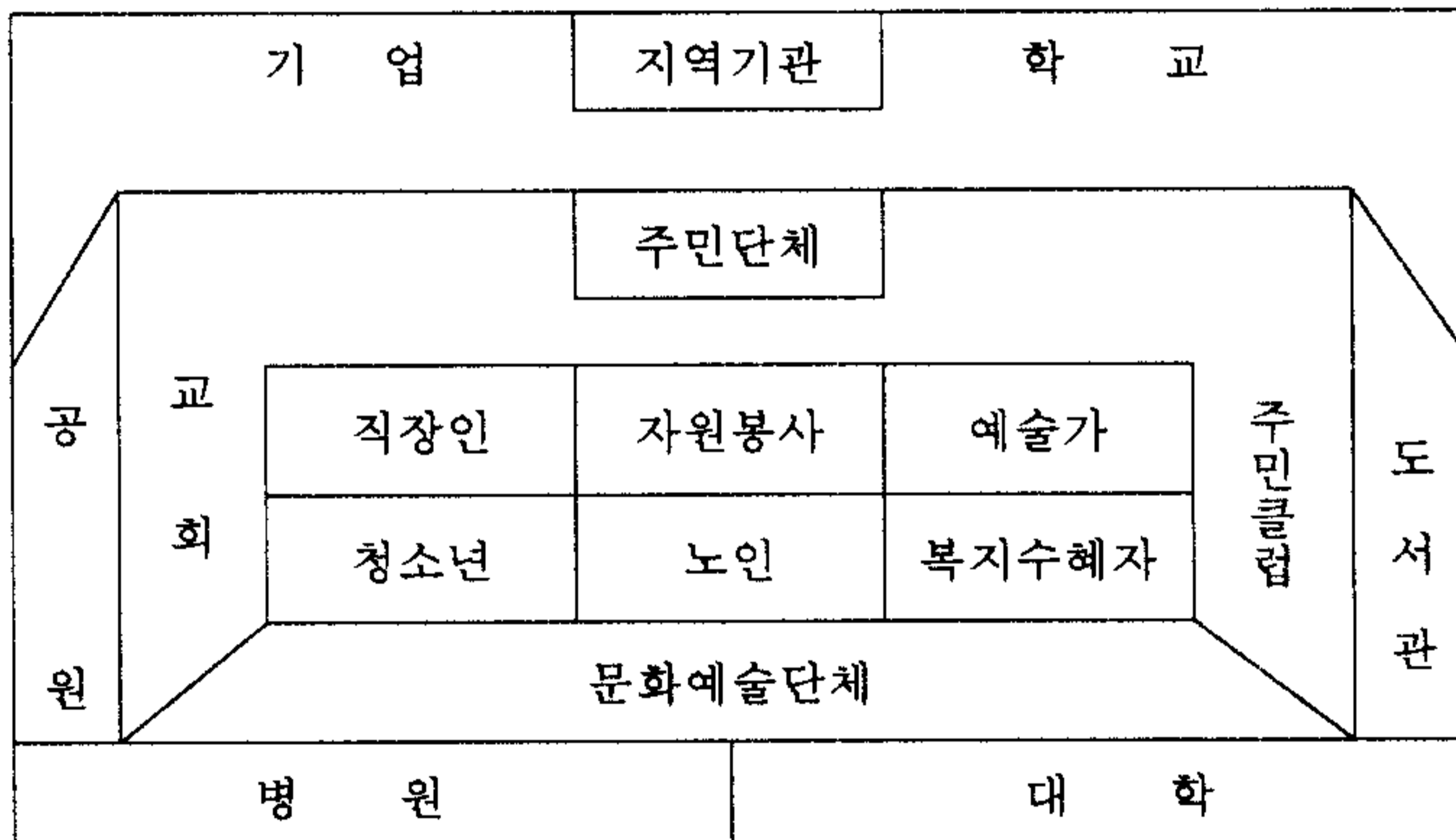
범죄, 마약, 매춘 등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한 뉴욕시의 슬럼가의 변화가 대표적인 한 예가 된다. 지역주민들이 그들 자신의 역량을 모아 시민단체들과 공공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지역사회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문제 해결담안 제시와 미국 서부지역 필라델피아에서는 펜실바니아 대학이 지역사회 각 기관들과 공조관계를 유지하여 도시를 범죄와 마약에서 구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나가 많은 대도시에서 이 도시로 모델로 보급시켜 나가고 있다.

크레츠만과 맥나이트가 비교하는 '욕구충족'모델과 '자산동원'모델을 구분하여 지역사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 전자는 지역사회가 무수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과 결점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고자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부재정과 기업후원 등 외부기관재정에 의존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역사회가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어떤 자산을 찾아내 동원해서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내부 자산력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을 보는 시각도 '욕구충족'모델은 먼저 클라이언트를 찾아내 그들의 욕구를 조사하려 할 것이고 <표 2>에서 처럼 커뮤니티 자산을 갖는 '자산동원' 모델은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단체 등 각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 내부 협력자를 구해 그들의 시간, 재능, 기금 등의 자산(assets)과 자원(resources)등의 목록을 작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주성수, 1999. 11 : 22~23)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조직모델은 아래와 같이 민관공조센터, 공동생산센터, 파트너쉽센터, 복지문화센터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커뮤니티 자산(assets)지도



첫째, 민관공조(collaboration)센터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이다.

우리의 행정현실로 볼 때 기존의 동기능을 완전히 행정에서 분리한 선진국의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순수 민간주민중심체제가 될 수 없고 그렇다고 기존의 관주도형 조직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행정개혁의 의미가 퇴색되고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되게 된다. 결국 기존의 정부행정조직과 주민자치조직들이 상호협력하고 공조하는 유형의 민관공조형이되어야 하여 앞으로는 선진국 형태의 민간주도형 커뮤니티센터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공동생산(coproduction)센터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이다.

서로 동등하고 긴밀한 파트너가 되어 민관공조를 구축하면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내부의 각종 문제해결과 지역문화 복지형성에 도움이 된다.

70년대부터 학계에서 주장해온 '공동생산'(coproduction)은 행정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공동생산자가 될 때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도시들은 지자체 업무의 절반이상을 민간단체와 주민의 자원봉사로 위임하거나 지자체와 공동생산하고 있다.

셋째, 파트너십(partnership)센터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이다.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공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한다.

민관공조가 가장 상위의 파트너십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 내부에 소속된 모든 기관단체들이 자치센터의 업무에 파트너로 참여해서 지원하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커뮤니티시설이론으로 소개되는 내용들도 커뮤니티가 소유하는 무수한 시설자산을 충분히 동원하고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이들 시설들을 운영하는 기관단체와 각종 s/w 기술과 지식을 제공해 주는 기관단체들도 파트너로 참여하는 조직화를 갖춰야 할 것이다.

자치센터가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체육, 레크레이션 시설 등의 물적 자산을 충분히 유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의 인적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등 영역에 있어서도 구별할 필요없이 지역사회 내부의 모든 기관단체들은 모두 참여하여 행정의 효율성,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민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유지전략이 필요하다.

끝으로 복지문화(social welfare-culture)센터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이다.

이상의 세가지 특성은 공급자 중심이라면 복지문화센터는 주민소비자 중심에서 자치센터의 특성과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커뮤니티라는 공동의 생활권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주민들은 세금을 내면서도 서비스 혜택을 받음으로써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이상적인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잘 추구되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

자치센터를 통해 주민들은 일정한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동참해서 자원봉사 등의 여러 방법으로 기여하는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자치센터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이런 활동에 적극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로 참여할 때만이 자치센터가 성공할 수 있다.

요즘 진행되는 시민교육 역시 자발적 자유의지를 갖고서 주체적으로 참여 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가장 훌륭한 시민이며, 봉사하며 배우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활동이 실질적인 시민교육이 된다.

결국 이러한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중요하다. 시민참여의 기능으로 개인의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정치체제에 대한 기능(The Advantage of Participation for the Political system)과 참여적인 조직에서 참여적 인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개인의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제고시켜 주민의 통합에 기여하는 정치적 통합에 대한 기능(The Advantage of Participation for the Integration)과 개인의 자기발전에 대한 기능(The Advantage of Participation for the Individual) 그리고 행정책임 확보기능, 특히 주민들에게 시민의식을 교육시키는 기능으로 민주주의 교육의 실습장으로서 시민참여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오재일, 1999 : 305)

이상에서 살펴본 기능과 함께 아직 미약하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자발성을 갖고 공익에 기여하는 주민자치단체들의 가치와 역할을 고려하여 자치센터에 상호 연계시켜야 한다.

이미 국제적, 정부차원의 조직, 주민자치조직들 NGO, CBO 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정부의 동등한 파트너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자치센터에서 모아진 의견을 모아 지방정부, 중앙정부로 새로운 인식과 정책이 확대되어 올라가는 새로운 bottom-up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공동체의식 확산을 통해 자치역량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학습을 통한 지역리더십을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제3장 서구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과 수요조사

제1절 서구주민자치센터 현황

1. 서구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

서구 주민자치센터의 추진 내용을 보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 신청('99. 2.23)을 전체 13개동으로 하여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대상기관 선정('99. 3.23. 행정자치부)된 후 자치센터 운영방안 연구 및 의견수렴(4월~6월)을 의회,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참여자치21,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광주·전남행정학회, 학계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하였다.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계획을 각동에 알리고,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사무·인력 조정지침 통보('99. 6. 4)와 함께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른 기구·인력 조정계획 수립하여 동 인력 187명중 77명 감축, 110명 잔류('99. 8.24인사발령)하였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을 통해 13개동 198명 자치위원 구성을 완료('99. 7. 7)하였고 이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을 위한 국·시비 보조(7월~)금으로 11억6천만원(국비 9억원, 시비 2억6천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 동사무소 사무 구 이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즉, 조례 6건, 규칙 3건, 훈령·예규·예규 3건, 지침 3건을 정비하였다. 법적근거를 갖춘후 주민자치센터(동민의집) ('99. 10. 2) 13개 전동(일부사업 시행)을 개소 하였다. 장단기 계획수립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역 발주('99. 10. 7)하여 주민 기초수요조사 등을 통한 동별 주민선호사업 분석을 하였고 실제운영을 위해 동민의집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품 보강(10월~)과 함께 본격적인 주민자치 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사업 수행(12월~)을 실시하였다.

1) 자치센터 운영 방안 연구 및 의견수렴

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연구 설명회를 갖고 내용으로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다른 모델개발 연구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자문요청을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특성, 공간구조, 주민수요를 고려한 자치사업 발굴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방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지역주민 자생조직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자문요청 하였다.

실질적인 참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 모델개발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99. 6. 10, 광주·전남 행정학회) 주제발표 및 토론과 주민자치센터의 현

실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후 서구 행정환경에 맞는 실질적 운영 프로그램개발과 운용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기관 연구의뢰(서구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하여 기존의 문화·복지시설과 기능별 연계 및 지역별 안배방안과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의 장·단기적인 대책 연구등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또한 서구청과 서구의회 공통 주민설문조사 실시 (1회, 1,500명)하여 주민들의 기초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사무·인력조정 및 자치법규 정비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동사무 실태조사(기간 : '99. 3. 15 ~ 3. 20, 대상동 : 화정4동)를 한 조사결과(총 194건)중 존치대상 136건, 이관대상 58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사무조정(총 655건)으로 이관대상 : 93건, 존치대상 : 184건 즉, 주민등록·제증명 등 민원사무,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농정업무 등은 존치하였다.

기타로는 378건(기이관 353건, 해당없음 25건)으로 나타났다. 다음 추진경위로는 동 사무실태 표본조사 - 화정4동('99. 3. 15 ~ 3. 20)를 통해 동사무소 사무·인력조정 지침 통보('99. 6. 9) 그리고 동사무의 구 이관에 따른 사전준비사항 파악('99. 7. 1)과 함께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계 획 시달('99. 8. 18)하였다. 또한 동 청소업무 구청 이관에 따른 청소차량 11대 구청으로 이동 하였다. (유덕, 서창동(농촌동) 제외) 또한 동 기능전환에 따른 기구·인력조정에 대해서는 기구증설이 2과 4담당(주민자치과, 사회진흥과)으로 자치센터 운영 및 대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였고 인력 재조정은 동인원을 187명에서 110명으로 조정 77명을 감축하였다. 추진경위로는 기구·인력조정계획 시 제출('99. 6. 16)하여 기구·정원 승인 통보('99. 7. 7)하였고 기구·정원 자치법규 정비('99. 8. 20)하여 기구·정원에 따른 인력 재조정('99. 8. 24)하였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는 정비대상 총 16건(조례6, 규칙3, 훈령·예규3, 지침4)이며 추진경위는 자치법규 정비대상목록 통보('99. 6. 9)하여 사무이관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 ('99. 8. 18)하였다.

3)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구성은 198명(남153, 여45)이며 추진경위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안 수립('99. 4. 6)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계획('99. 5. 3)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실시('99. 6. 29)하였다. 또한 운영현황은 매월 1회 회의 개최하기로 했다.

4)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

「동민의집」 현판 설치를 시작으로 자치센터 명칭을 정하기 위하여 자치센터, 주민복지회관, 동민의집 등의 명칭중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에게 친숙하고 호감이 가는 「동민의집」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서구의 독창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서구 CI사업과 연계하여 심볼 및 로고를 현판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동민의집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동민의집 시설 보강 수요조사('99. 10. 4 ~ 10. 11(1주일))를 하여 동별 시설 개·보수 수요조사, 예산소요액 파악 및 간이설계 작성하였다. 또한 동민의집 청사 보강공사 실시('99. 10. 11 ~ 10. 30 (20일간))하고 그 대상으로는 서구관내 13개동 및 현장민원실(양동, 상무)의 건물도색, 노후시설 보수, 창호·방수공사 등을 하여 기존의 사용중인 집기나 사무용품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과도한 인테리어 등 전시성 예산집행을 억제하여 실효성있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5) 자치사업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 구가 시범자치 단체로서 전동 공통사업이나 이미 추진중인 사업은 중단없이 우선 운영하기로 했다. 정보 사랑방,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청소년공부방 등 그리고 층별배치는 지하1층(에어로빅, 차밍디스코, 노래교실, 장고교실), 지상1층(민원실, 정보사랑방, 미니도서실, 시청각교실) 지상2층(다용도회의실, 주민사랑방, 꽃꽂이교실) 지상3층(청소년공부방, 서예교실)로 하였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동사무소를 주민 종합복지센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무실 건축시 주민의 복지공간을 확보하고 동사무소의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민원편의 공간과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장고교실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지역여건이나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 주민 다수의 호응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 빠른 시일내에 서구 주민 모두가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 서구주민자치센터 추진과 프로그램운영

1) 자치자치센터 추진

주민자치센터 추진사업은 접근성, 주민참여도, 주민상호간 의사소통을 위한 만남의장 개설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이용이 용이한 접근성 문제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권에서 쉽게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공간에서 주민공동체가 형성되고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문화, 복지등에 대한 평등한 접근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민참여도 문제이다. 주민 참여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수있느냐가 주민자치센터의 성패가 달려있다. 지역주민의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주민 상호간 의사소통과 만남의 장이 개설 되어져야 한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현장체험 평생 학습, 창의력 개발 등을 갖기 위한 지역주민의 만남의장이 되어 주민서로 문화와 정보 공유를 갖고서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여 생활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생산적 참여 자치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2) 서구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내용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은 ① 정보활용 프로그램(인터넷활용, 각종사이트 개설 및 활용) ②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노래교실, 서예, 꽃꽂이, 한국무용, 요가, 차밍디스코등) ③ 사회복지프로그램(탁아방, 건강교실, 체력단련실, 무료이미용실운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돕기, 품앗이운동) ④ 사회교육 프로그램(외국어강좌, 각종생활 강좌, 평생학습 프로그램) ⑤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환경정비, 청소년보호, 소비절약, 거리청소, 자원봉사 활성화, 중고품 교환시장)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초기단계에서는 각 동의 지역적 특성에 맞춘 선별적운영 <표 3> 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상호 융합하여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표 3〉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특성과 공간 설치 환경

동	구분	지 역 특 성	규 모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양 동		양동시장 공구상가, 유동인구(4~5만명), 영세상인 저소득층 밀집 주민자율조직 활성화	331	598.95	지상 3 지하 1
양 3 동		저소득층 吉家밀집, 개발낙후 지역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미비	329	352.11	지상 3
농 성 1 동		주거업무 복합지역, 도시기반시설 양호, 관공서 밀집	384.4	475.84	지상 2 지하 1
농 성 2 동		중산층 다수거주지역, 도시기반시설양호, 남구와의 경계지역	386.8	339.18	지상 2
광 천 동		교통의 요충지, 유동인구(백화점, 터미널, 전자상가), 저소득층영세민 다수거주	559	670.92	지상 1 지하 1
유 덕 동		都農복합지역, 환경시설집중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미비	1,607	283.8	지상 1
상 무 1 동		상무신도심 택지개발, 기관학교 밀집예정, 주민휴식공간 다수 미래 광주의 중심지	581	1,094.32	지상 2 지하 1
상 무 2 동		신흥개발지역과 인접, 빈부의 격차 심함, 주요간선도로가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	500.1	924.75	지상 3 지하 1
화 정 1 동		터미널주변 유동인구다수, 행정수요 급증, 중산층거주, 도시기반시설 열악	613	792.99	지상 2 지하 1
화 정 2 동		근로자중심 아파트밀집, 전형적인 주거지역, 교육의 요충지	451	133.2	지상 1
화 정 3 동		중산층 단독주택밀집지역, 신흥개발지로 주민의 개성이 다양함, 도로변에 상가형성	232	297.9	지상 2
화 정 4 동		전형적인 도시형태지역,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양분, 신흥상가 밀집지역, 체육문화복지기반양호	490.1	1,055.38	지상 3 지하 1
서 창 동		都農복합지역, 도심철도 및 제2순환도로, 종합유통단지, 대단위 택지개발, 군사보호개발제한지역	1,349	532.65	지상 2

제2절 서구청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수요조사 분석

1. 조사 목적과 내용

기존의 일반행정에서 문화·복지기능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밀접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278개 동을 시범지역 선정하였고 광주 서구가 그중 하나이다.

시범 실시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재원 확보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특히 주민들과 밀접한 일상생활 문화, 복지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어떠한 인식과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초수요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체적인 참여자이자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본 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센터(동민의집) 운영위한 기초조사」의 조사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서구의 현실정에 따라 항목을 설정하였다.

선정된 조사 항목에 따라서 전체적인 설문조사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경우 동사무소의 공간구조 및 지역의 특수성과 주위여건과 비교하여 사업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항목으로 결정하였다. 이 조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프로그램, 시설, 공간 등 선호도 조사와 주민의 참여 정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목적, 운영주체, 프로그램운영대상, 이용시간, 기능전환후 불편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2. 조사의 설계 및 진행

조사대상을 서구에 거주하며 비교적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는 각 동별 직능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 대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주민자치위원, 동정자문위원, 바르게 살기위원,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와 각 동의 통장과 반장을 포함시켰다.

특히 현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혀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질문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질문에 대한 응답이 사실과 동떨어진 응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상의 직능단체회원들을 정보제공자(Key informant)로 삼아 조사설계하였다.

1. 연구기관 : 1999. 10. 1 ~ 11. 30
2. 조사지역 : 광주광역시 서구 전지역
3. 조사방법 : 인터뷰 설문조사
4. 조사내용 : 각동 직능단체 회원
5. 표본수 : 2384명
6. 표본추출방법 : 각동별 직능단체회원 전원
7. 조사기간 : 1999. 11. 1 ~ 11. 10 (10일간)
8. 자료처리 및 분석

Spss/Pc+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및 교차분석 (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4〉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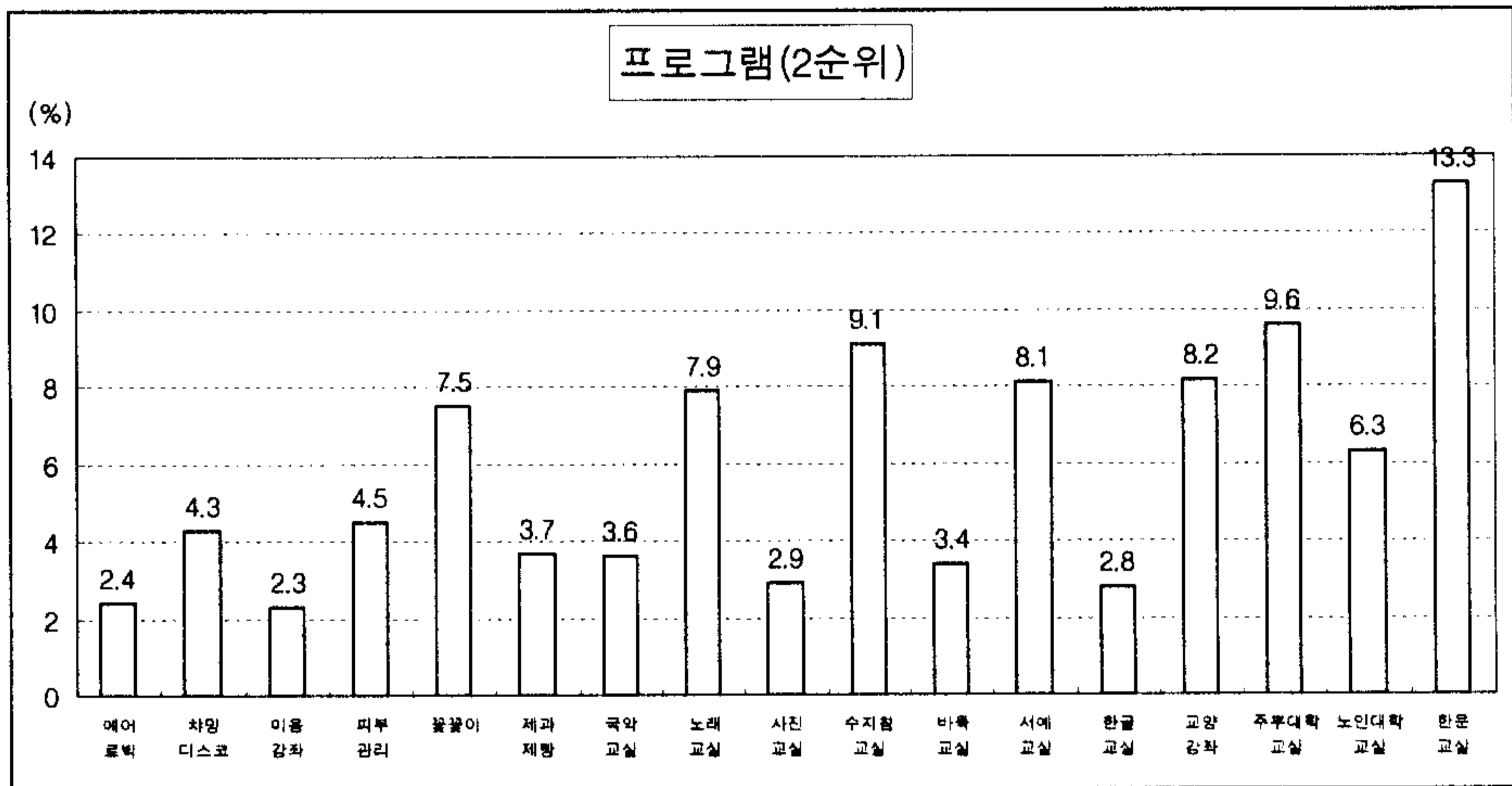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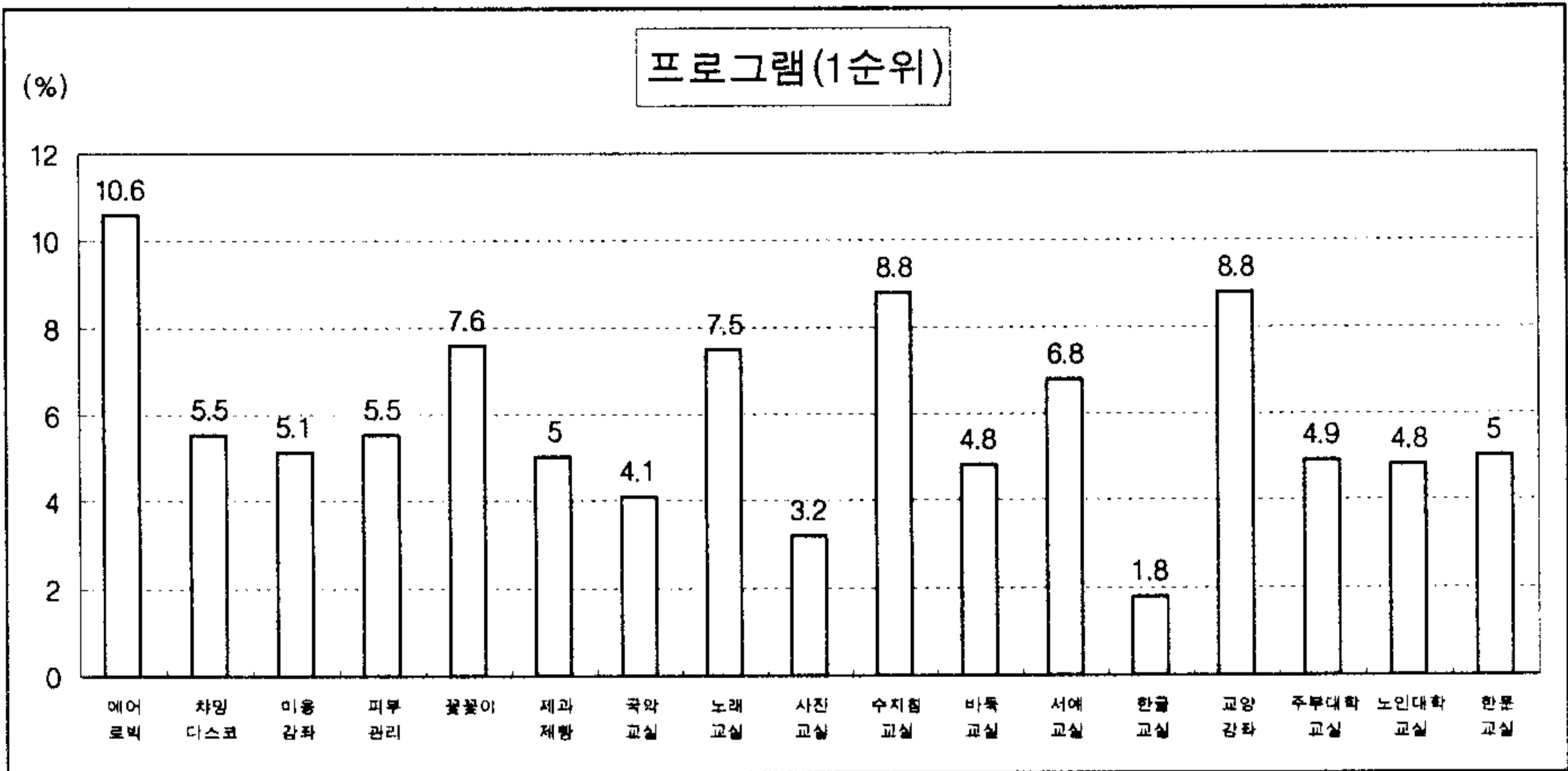
		응답자수(명)	%
성 별	남 자	893	37.5
	여 자	1,489	62.5
	.	2	0.1
나 이	10 대	10	0.4
	20 대	270	11.4
	30 대	700	29.4
	40 대	800	33.6
	50 대	443	18.6
	60대이상	152	6.4
	.	9	0.4
결혼 여부	기 혼	2,028	85.1
	미 혼	351	14.7
	.	5	0.2
가족 관계	4인 이하	1,705	85.1
	5인 이상	669	28.1
	.	10	0.4
세대 구성	세 대 주	889	37.5
	주 부	1077	45.2
	세대주+주부	127	5.3
	기타 가족	286	12.0
	.	5	0.2
주거 형태	단독주택	1402	58.8
	공동주택	930	39.0
	기 타	49	2.1
	.	3	0.1
교육 수준	초등졸 이하	124	5.2
	중 졸	426	17.9
	고 졸	1190	49.9
	대 학 생	127	5.3
	대 학 졸	491	20.6
	대학원 이상	21	0.9
	.	5	0.2
직 업	의사/변호사/전문직	40	1.7
	교사/교수직	41	1.7
	관리/사무직	239	10.0
	판매/서비스직	456	19.1
	공 무 원	91	3.8
	농 업	215	9.0
	기 타	1282	53.8
	.	20	0.8

조사 결과

1.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동민의 집)로 전환될 경우 동사무소의 공간구조 및 지역의 특수성과 주위 여건과 비교하여 어떤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가? (2가지 선택)

1-1. 프로그램중 원하는 사업의 1, 2순위는 무엇인가?

〈표 5〉 프로그램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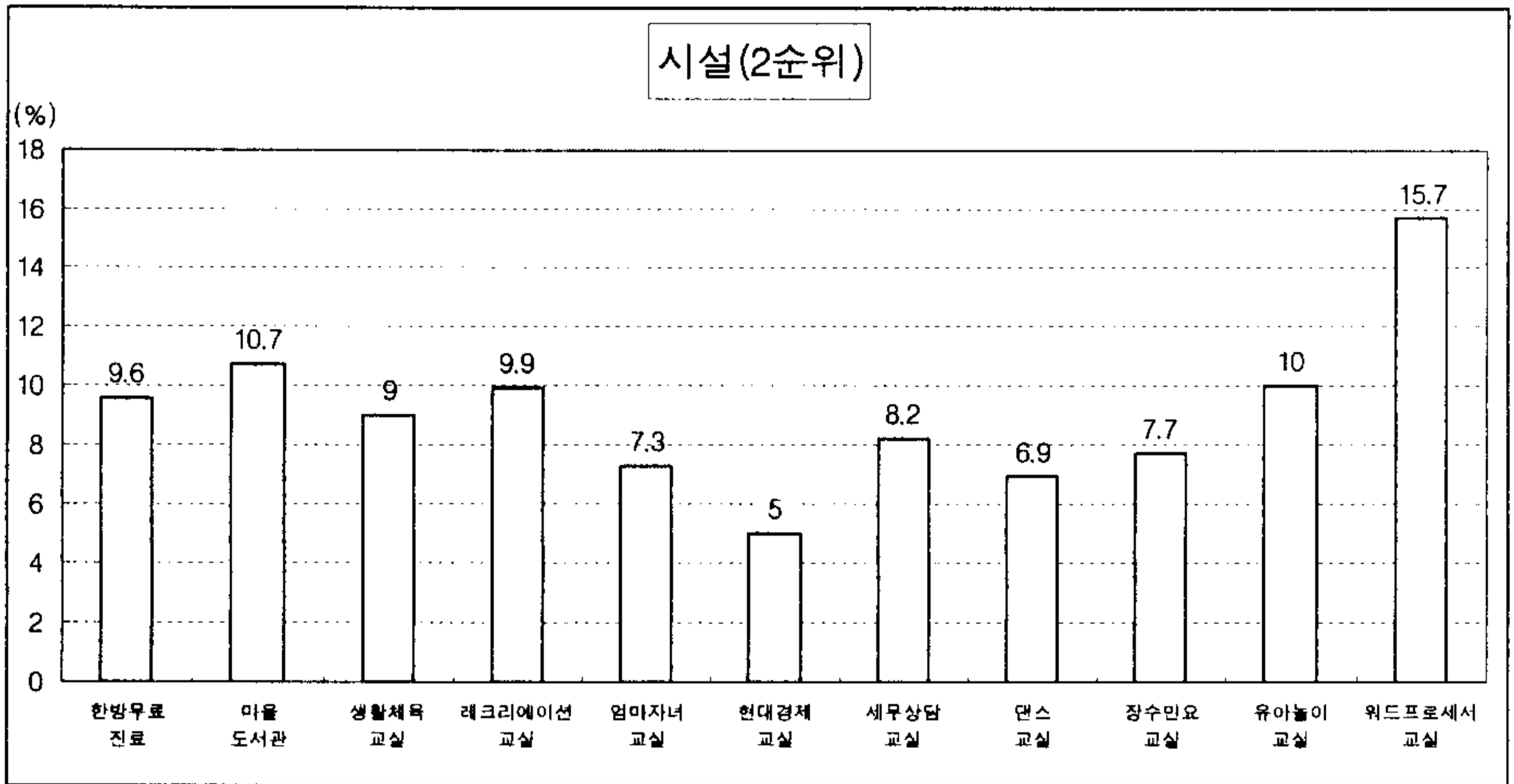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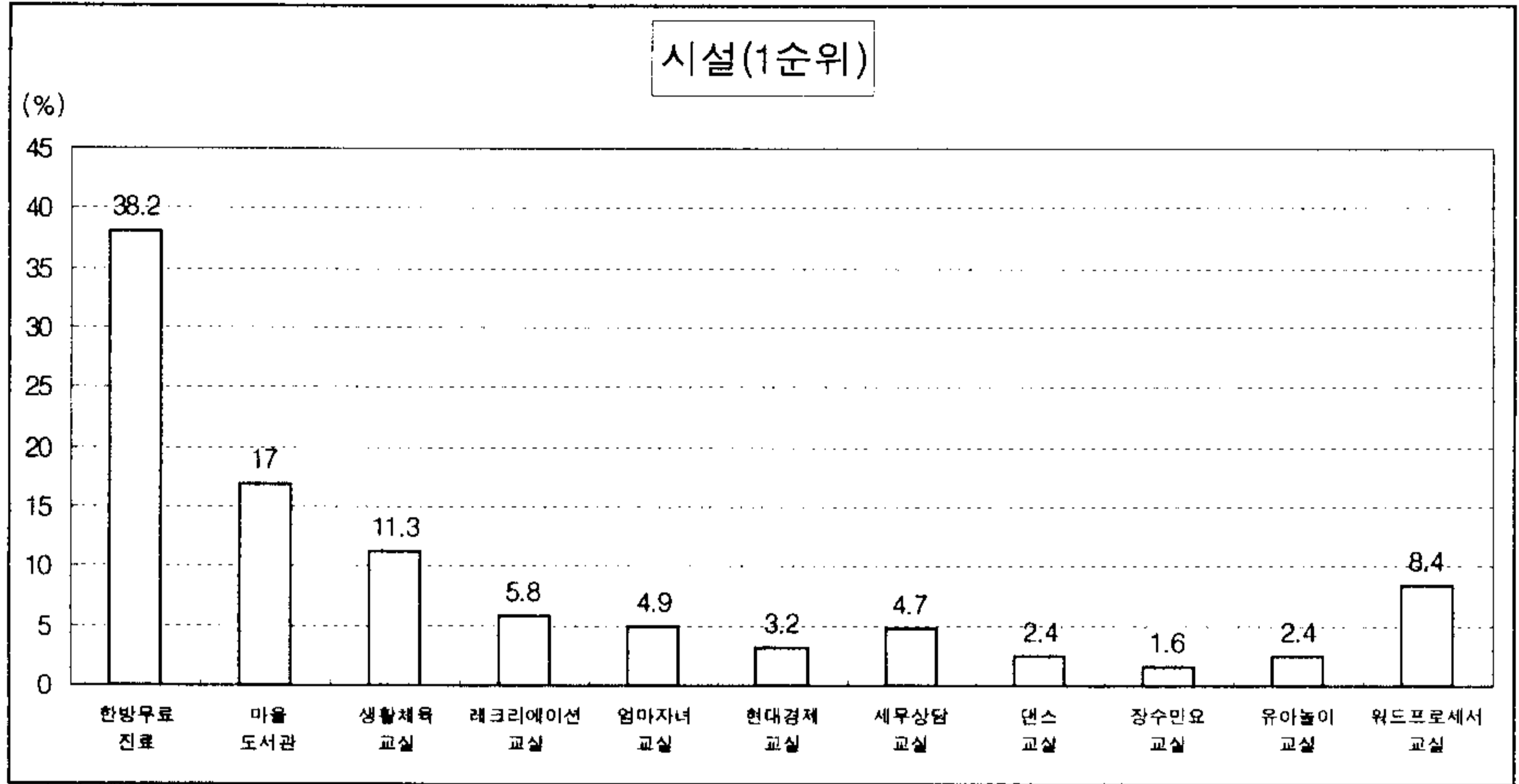


- 1순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에어로빅(10.6%), 수지침교실(8.8%), 교양강좌(8.8%)와 꽃꽂이(7.6), 노래교실 (7.5%)로 응답하였고,
- 2순위에 대해서는 한문교실(13.3%), 주부대학(9.6%), 수지침교실(9.1%), 교양강좌(8.2%), 노래교실 (7.9%)라 응답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에어로빅, 수지침교실, 교양강좌, 한문교실, 노래교실 주부대학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1-2. 시설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 2가지는 무엇인가?

<표 6> 시설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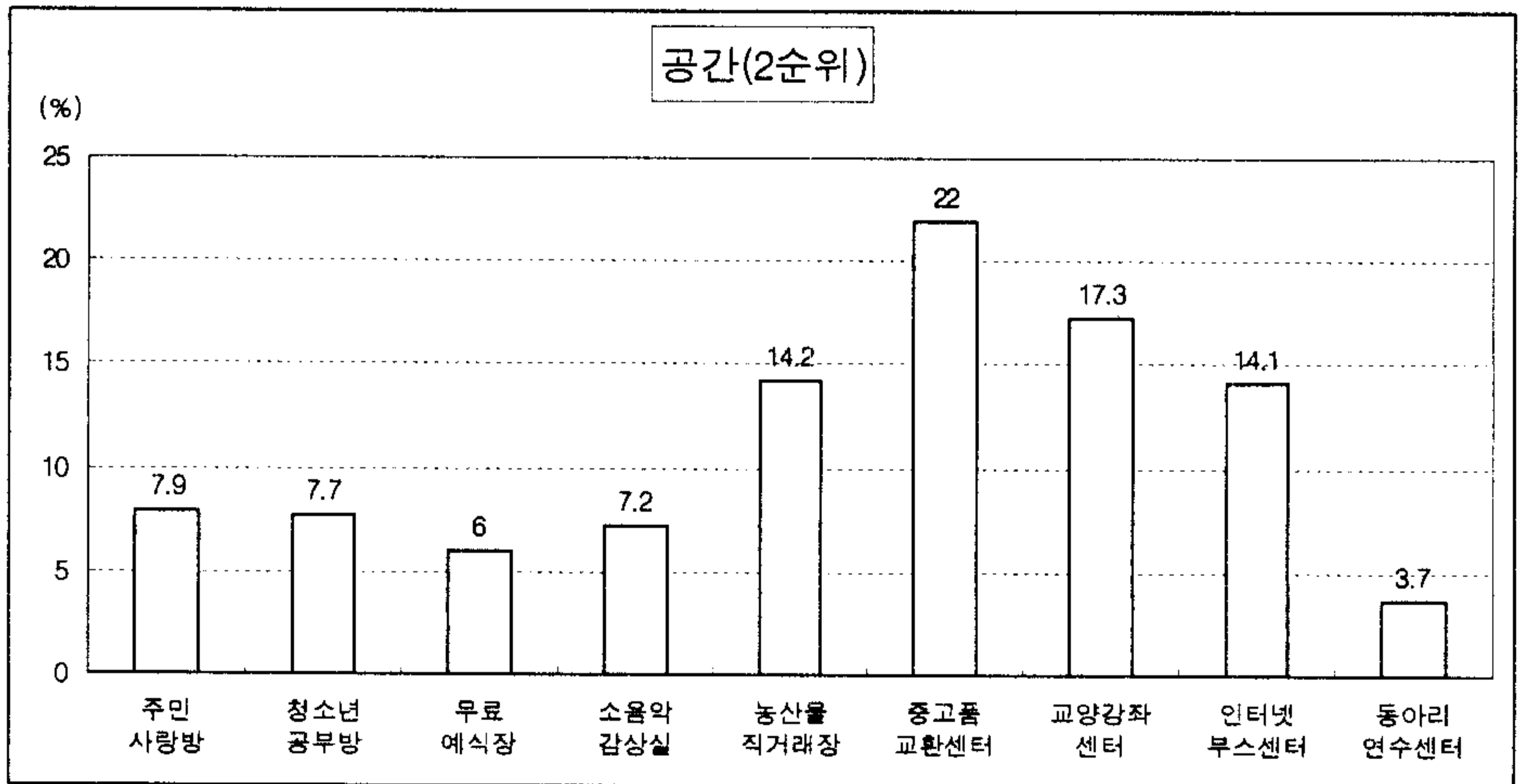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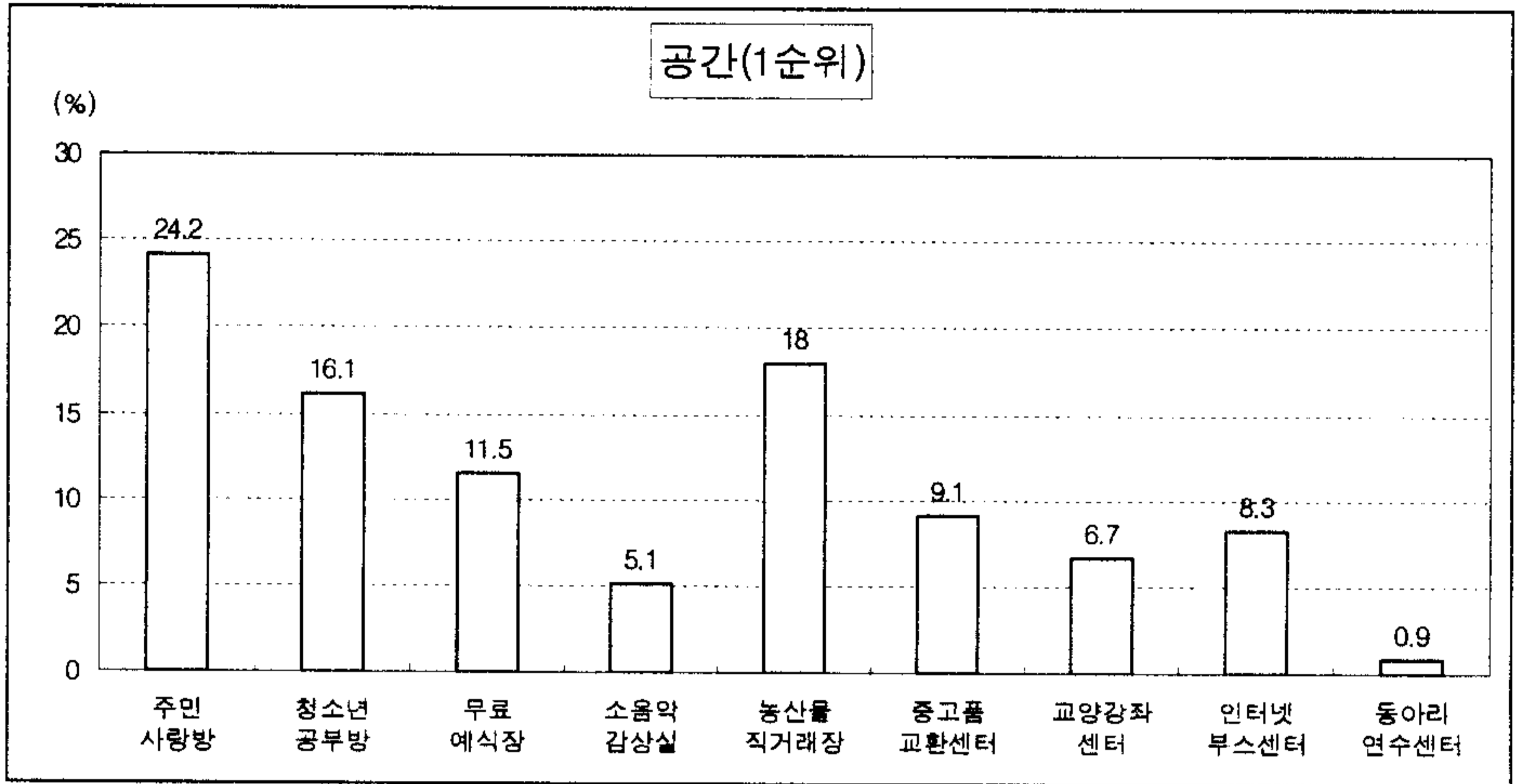
○ 시설 1순위에 대해서는 한방무료진료(38.2%), 마을도서관(17%), 생활체육교실(11.3%), 워드프로세서교실(8.4%), 레크리에이션교실(5.85)과 응답했고

○ 시설 2순위에 대해서는 워드프로세서(15.7%), 마을도서관(10.7%), 유아놀이교실(10%), 레크리에이션교실(9.9%), 한방무료진료 (9.6%)라 응답했다.

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한방무료진료, 마을도서관, 생활체육교실, 레크리에이션 교실, 워드프로세서 교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1-3. 공간에 대한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은 무엇인가?

<표 7> 공간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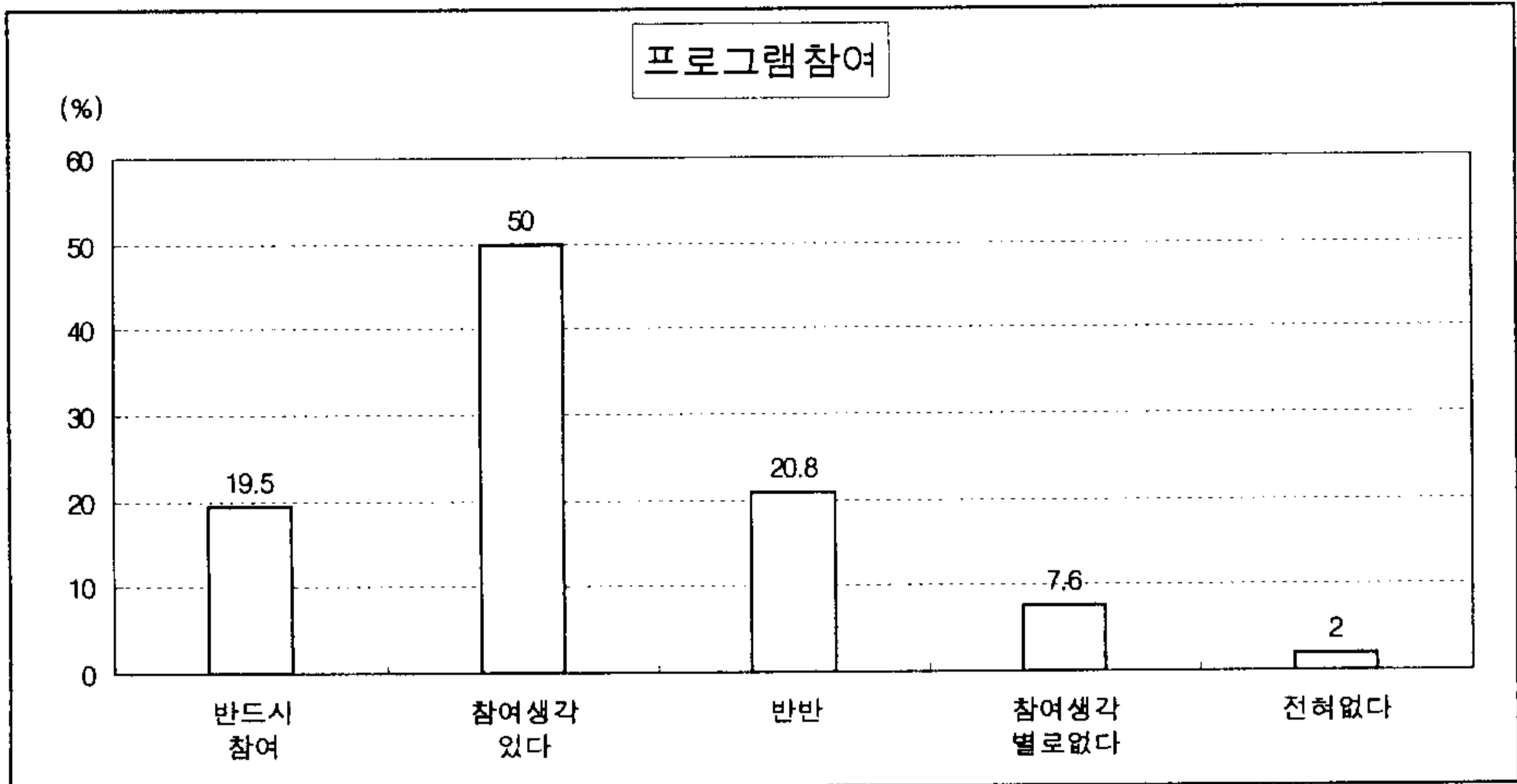
- 공간1순위에 대한 선호도사업으로 주민사랑방 (24.2%) 농산물직거래장 (18%) 청소년공부방 (16.1%) 무료예식장 (11.5%)로 응답했으며
- 공간2순위에 대한 선호도사업은 중고품교환센터 (22%) 교양강좌센터 (17.3%) 농산물직거래장 (14.2%) 인터넷부스센터 (14.1%)라 응답했다.

공간에 대한 선호도사업은 주민사랑방, 중고품교환센터, 농산물직거래장, 교양강좌센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는데 다음 기능별 운영에 참여할 생각이 어느 정도인가?

2-1. 프로그램 영역에 참여할 생각이 어느 정도인가?

〈표 8〉 프로그램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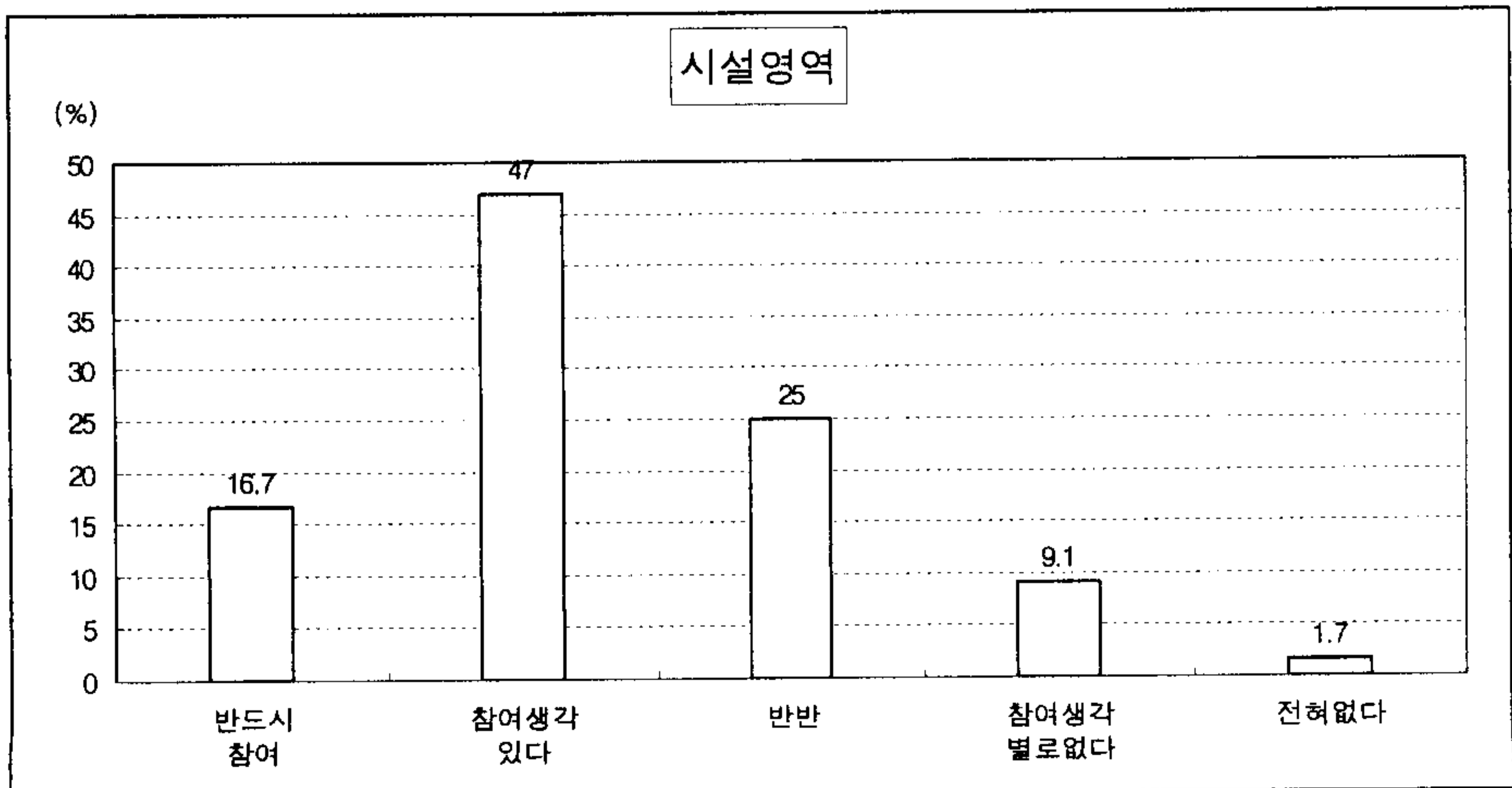


프로그램 참여도 조사에서는 참여 생각 있다 (50%), 반반(20.8%), 반드시 참여(19.5%), 참여생각 별로 없다(7.6%), 전혀 없다(2%)로 응답했다.

총 응답자 중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이 69.5%로 나타났다. 나머지 참여에 별 관심이 없는 응답이 20.5%로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많은 홍보와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2-2. 시설영역에 참여할 생각이 어느 정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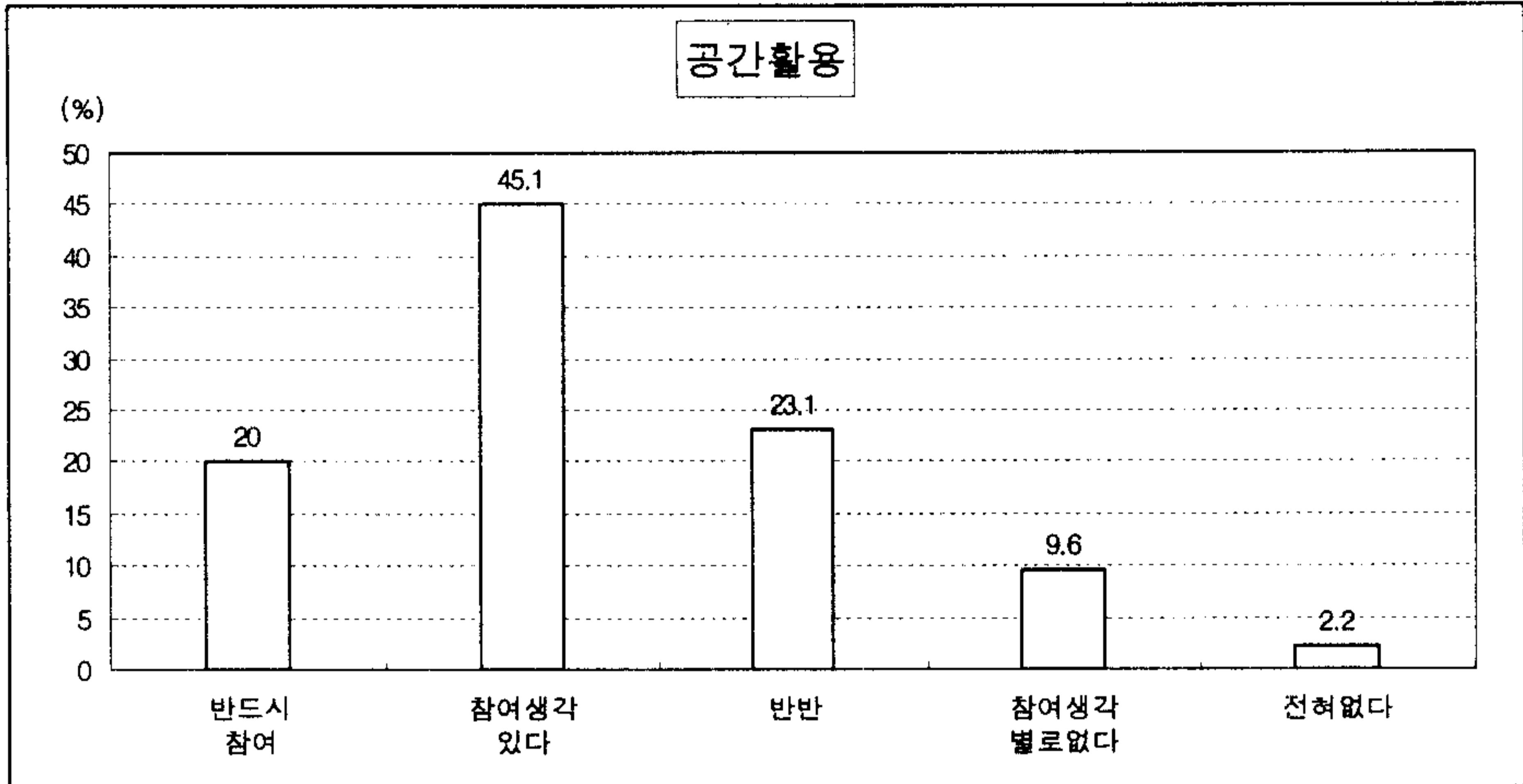
〈표 9〉 시설영역 참여도



참여 생각 있다(47%), 반반(25%), 반드시 참여(16.7%), 참여 생각 별로 없다(9.1%), 전혀 없다(1.7%)로 응답했다. 총 응답자 중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이 63.7%로 나타났다. 나머지 참여에 별 관심이 없는 응답이 26.3%로 시설영역에 따른 홍보와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2-3. 공간활용 영역에 참여할 생각이 어느 정도인가?

〈표 10〉 공간활용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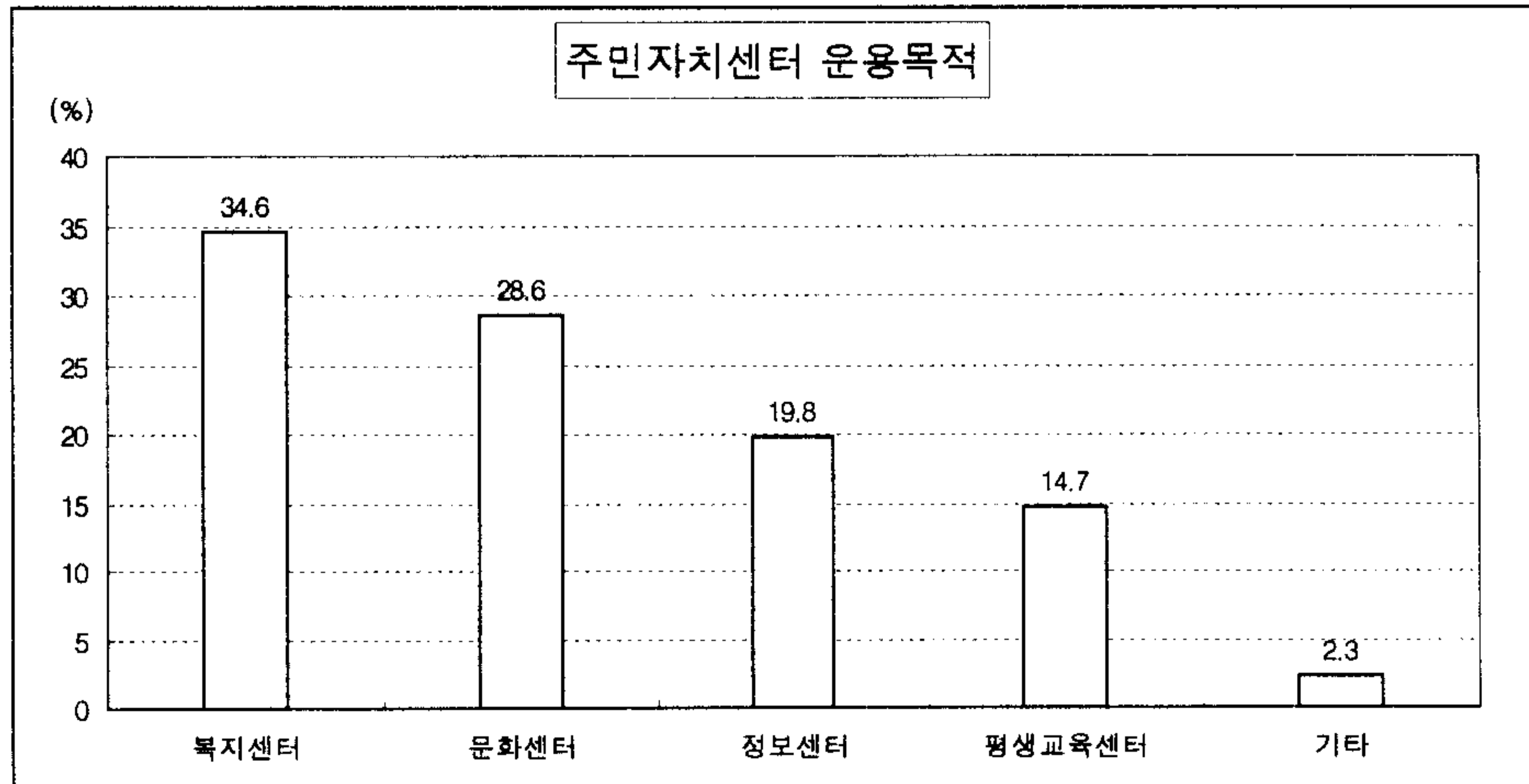
공간활용 참여도 조사에서는 참여 생각 있다(45.1%), 반반(23.1%), 반드시 참여(20%), 참여 생각 별로 없다(9.6%), 전혀 없다 (2.2%)로 응답했다.

총 응답자 중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이 65.1%로 나타났다. 나머지 참여에 별 관심이 없는 응답이 34.9%로 공간활용참여에 관한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프로그램영역, 시설영역, 공간영역으로 세분화한 조사에서 참여할 의사가 높게 나타난 영역은 프로그램영역(69.5%), 공간영역(65.1%), 시설영역 (6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타 영역에 비해 구체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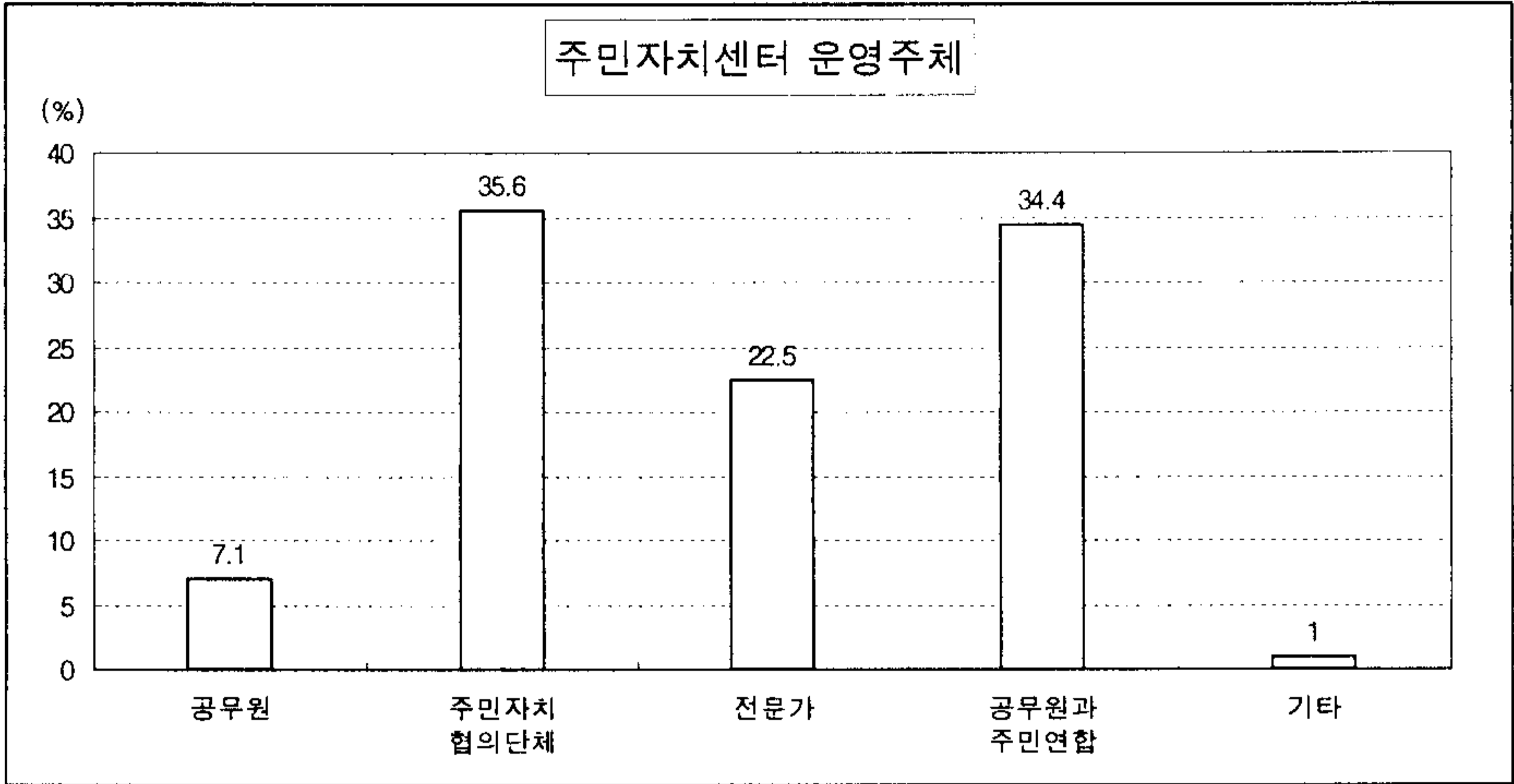
〈표 11〉 주민자치센터 운용목적



주민자치센터 운영목적에 대해서 복지센터(34.6%), 문화센터(28.6%), 정보센터(19.8%), 평생교육센터(14.7%), 기타(2.3%)로 나타났다.

4. 주민자치센터를 누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표 12〉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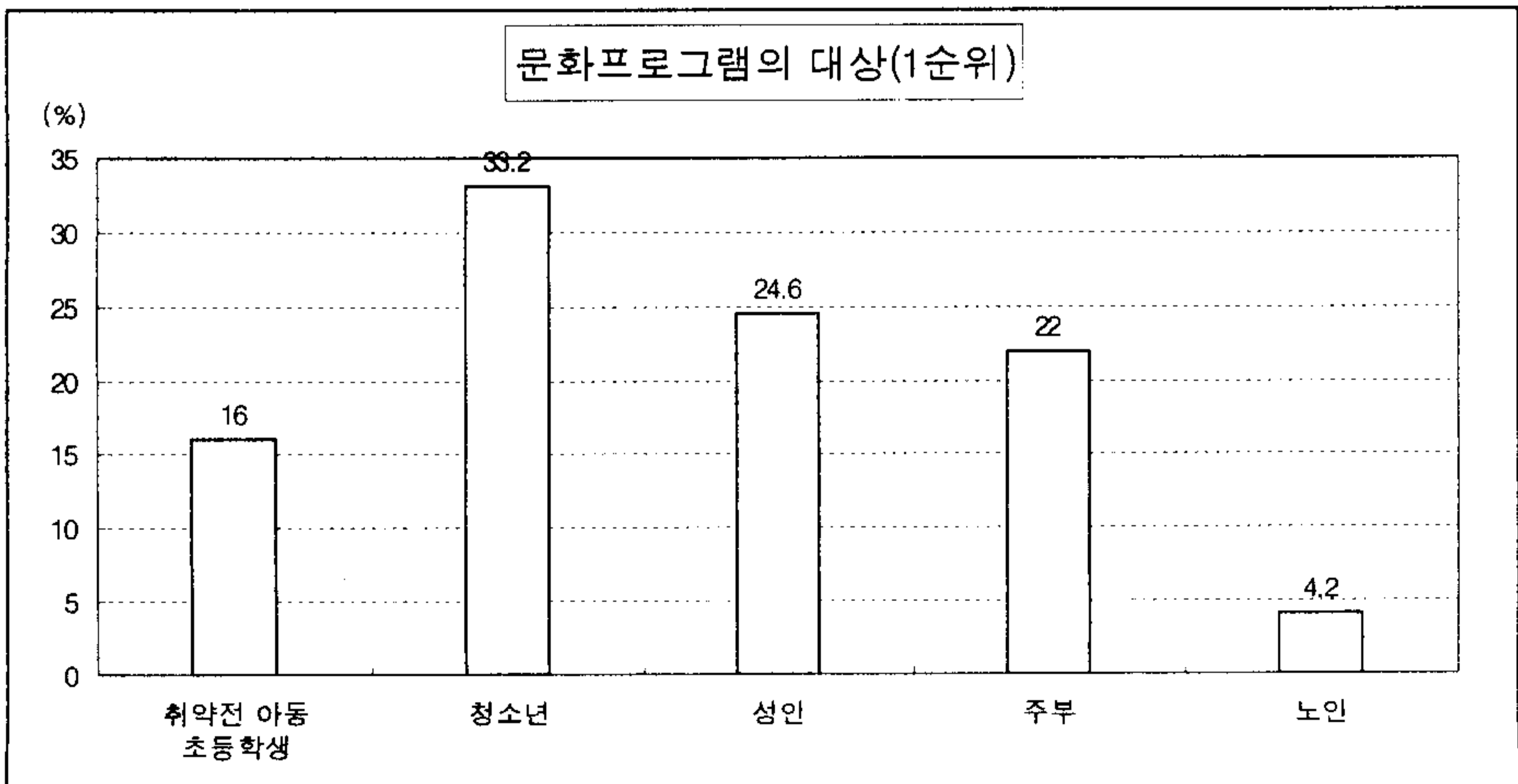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에 대한 조사에서 주민자치협의단체 (35.6%) 공무원과 주민연합 (34.4%) 전문가 (22.5%) 공무원 (7.1%) 기타 (1%)로 응답했다.

5.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5-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상(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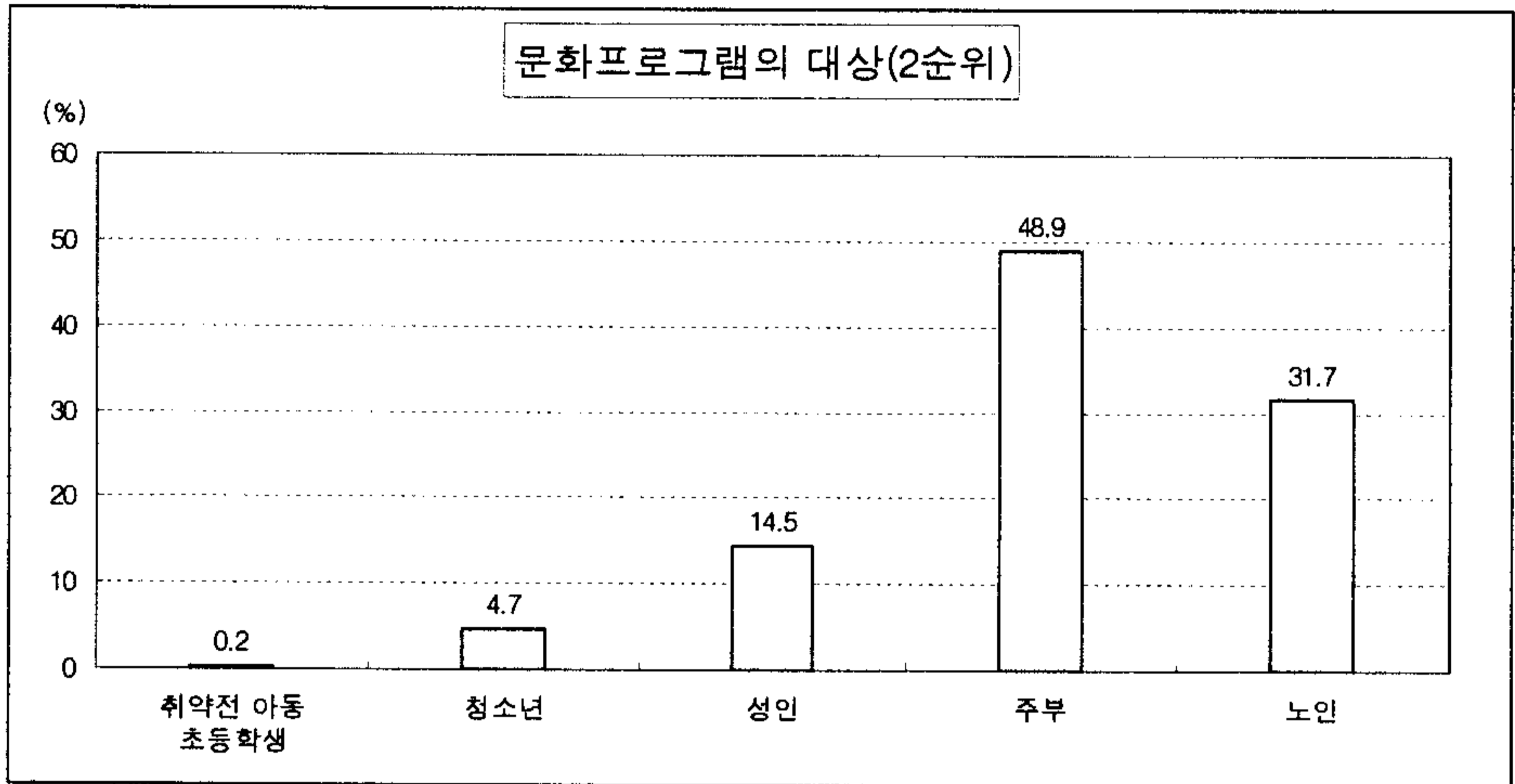
〈표 13〉 문화프로그램 대상 (1순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대상 1순위로는 청소년(33.2%), 성인(24.6%), 주부(22%), 취학 전 아동·초등학생(16%), 노인(4.2%)로 응답했다,

5-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대상(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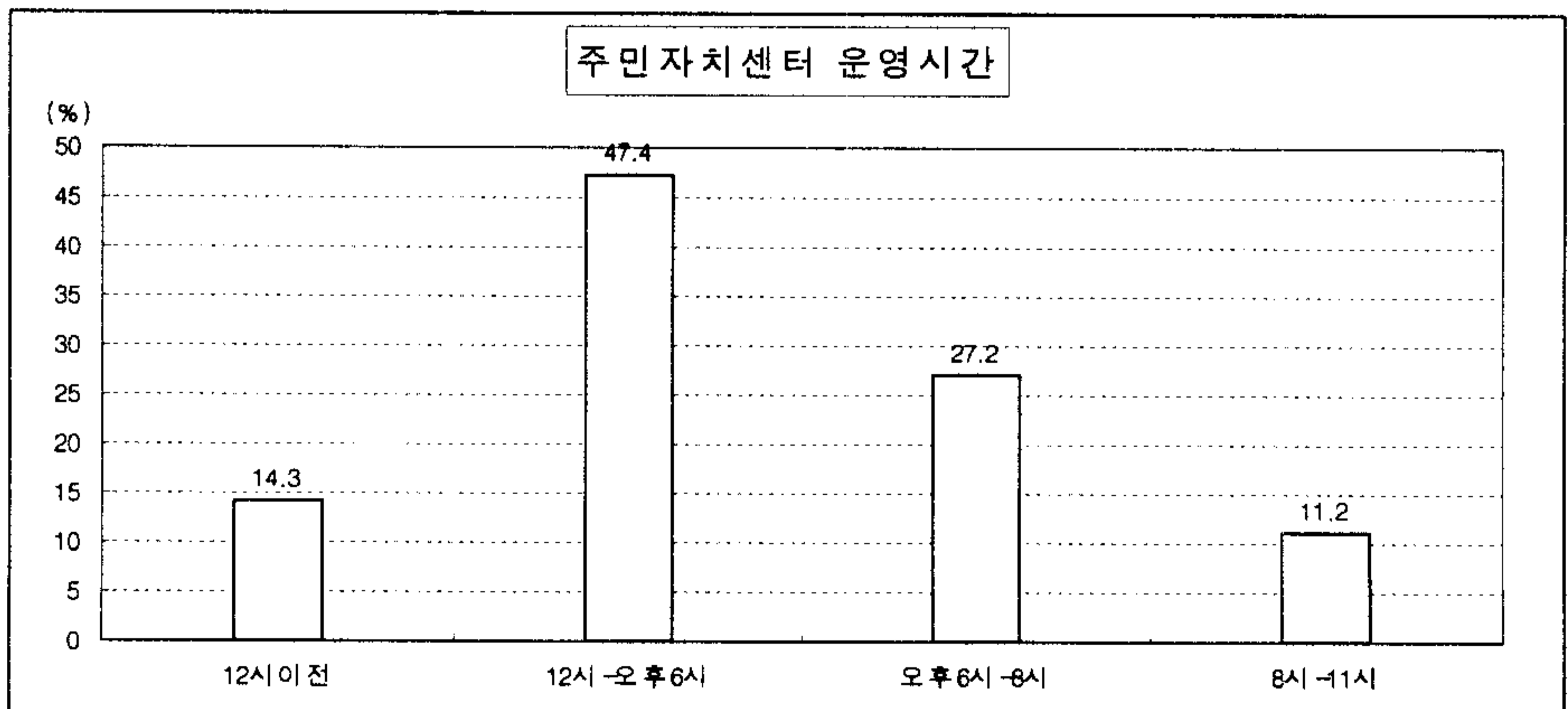
〈표 1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상(2순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대상 2순위로는 주부(48.9%), 노인(31.7%), 성인(14.5%), 청소년(4.7%), 취학 전 아동·초등학생(0.2%)으로 응답했다.

6.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

〈표15〉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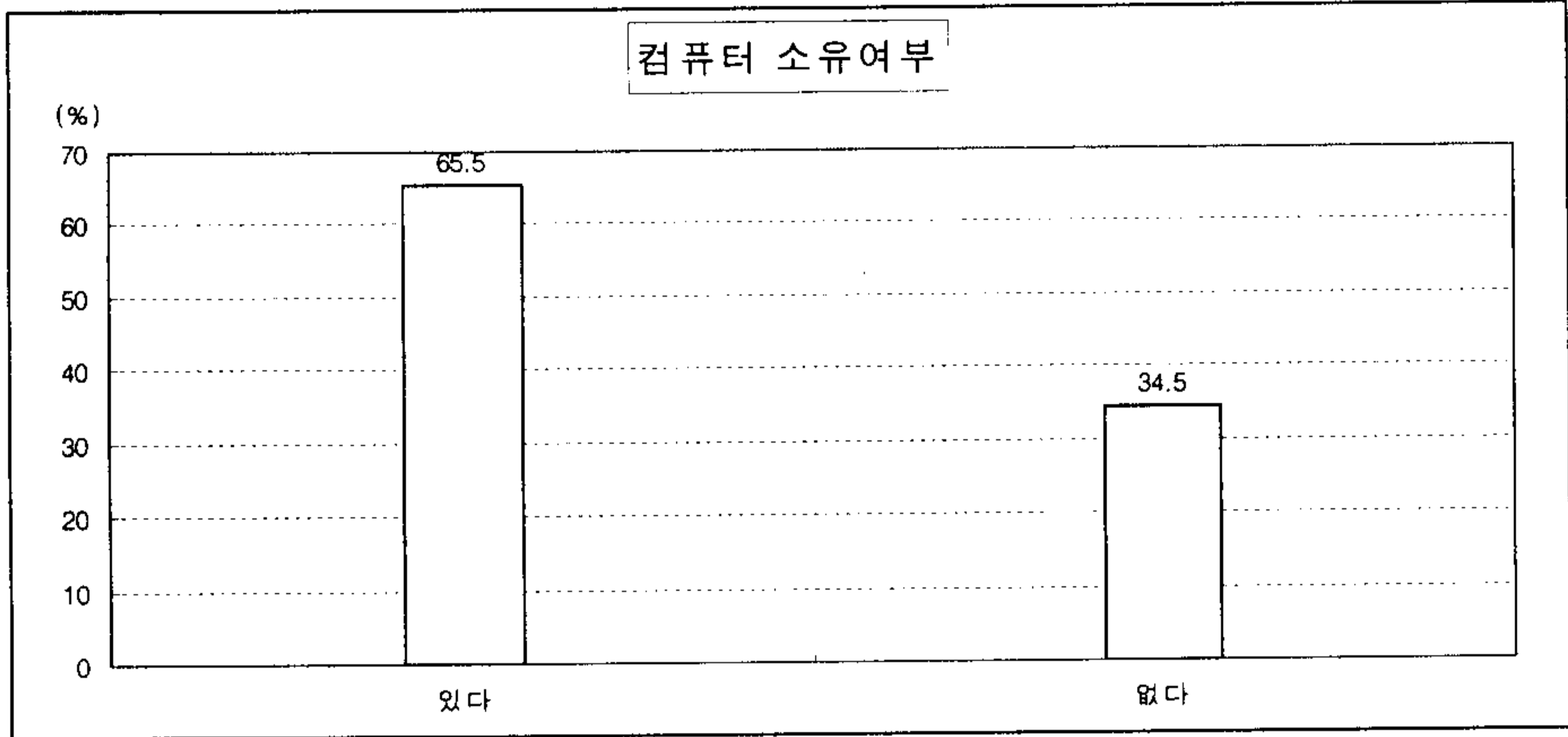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으로는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47.4%), 오후 6시부터 8시까지(27.2%), 12시 이전(14.3%), 8시부터 11시(11.2%)로 응답했다.

가장 좋은 운영시간은 주로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와 12시 이전 등(61.7%)은 가정주부들 중심 프로그램으로 오전 일을 마치고 오후 일과시간을 활용하려는 생각과 함께 다음으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8시부터 11시까지(38.4%)는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으로 학교수업이 끝난 후 주로 이용하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7.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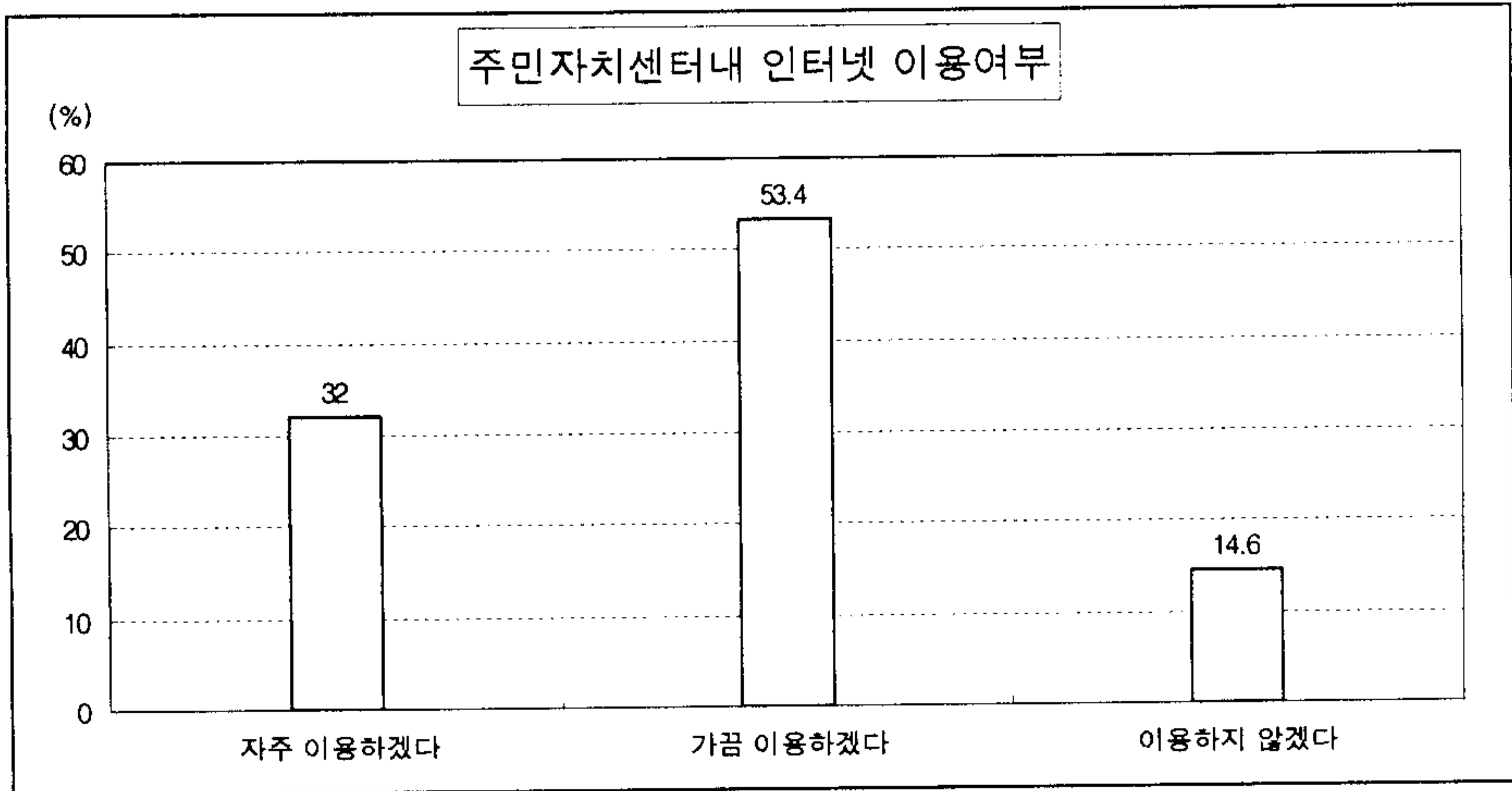
〈표 16〉 컴퓨터 소유 여부



컴퓨터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65.5%), 없다(34.5%)로 응답했다.

8. 주민자치센터 내의 「인터넷」을 이용할 생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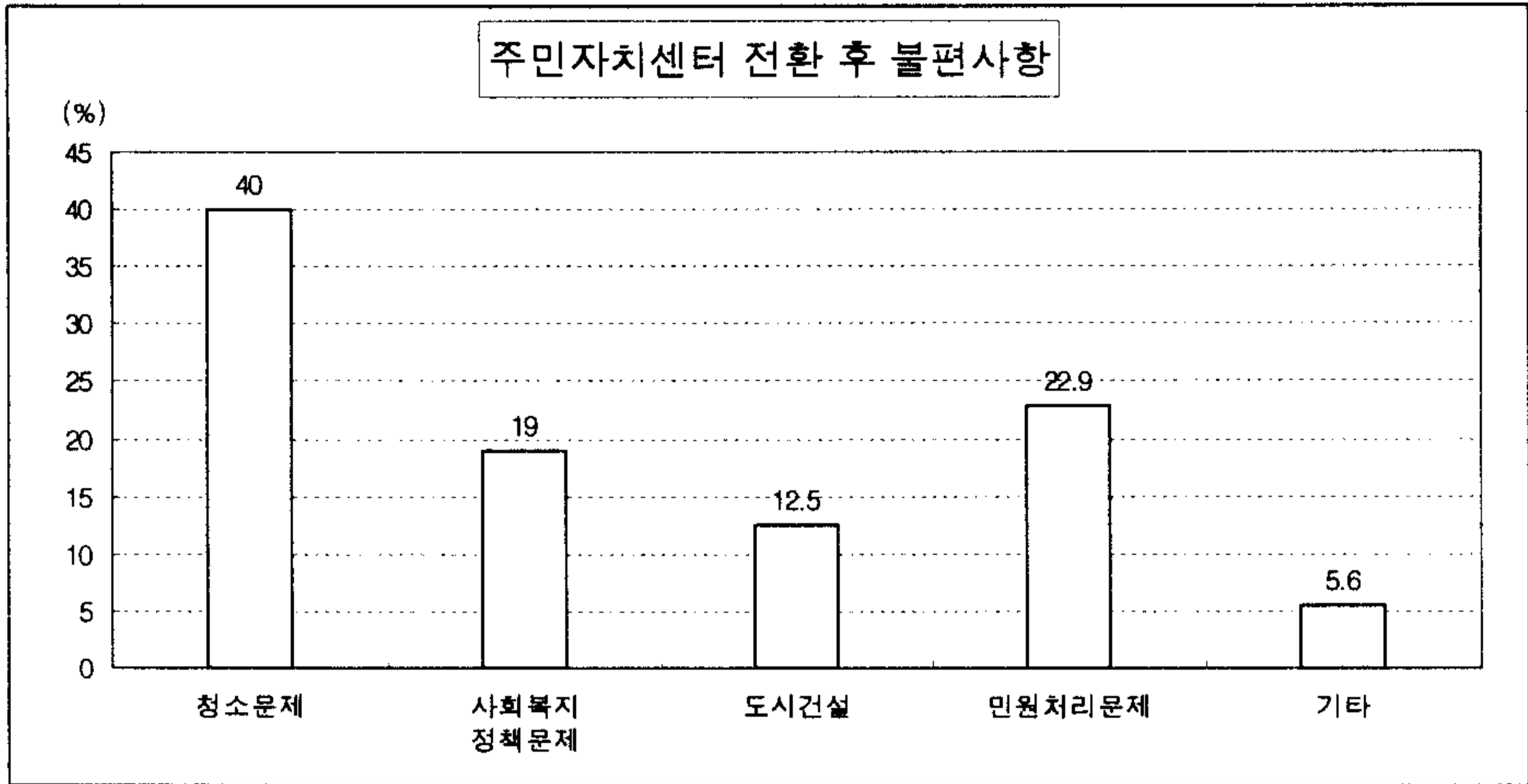
〈표 17〉 주민자치센터 내 인터넷 이용 여부



주민자치센터 내의 인터넷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가끔 이용하겠다(53.4%), 자주 이용하겠다(32%), 이용하지 않겠다(14.6%)로 나타났다.

9. 주민자치센터로 동의 기능이 전환된 후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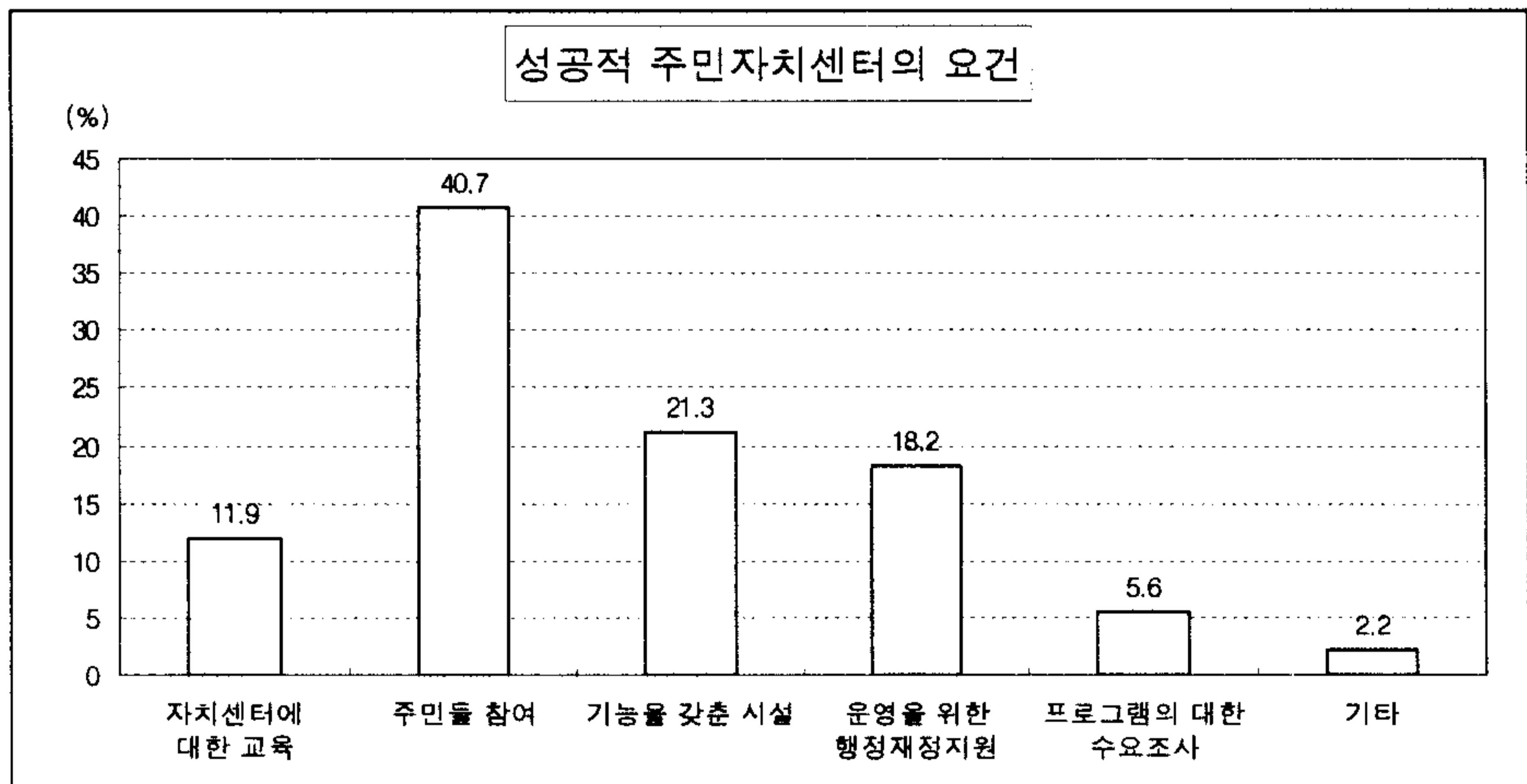
〈표 18〉 주민자치센터 전환 후 불편사항



주민자치센터 전환 후 불편사항으로 청소문제(40%), 민원처리문제(22.9%), 사회복지문제(19%), 도시건설문제 (12.5%) 기타 (5.6%)로 응답했다.

10.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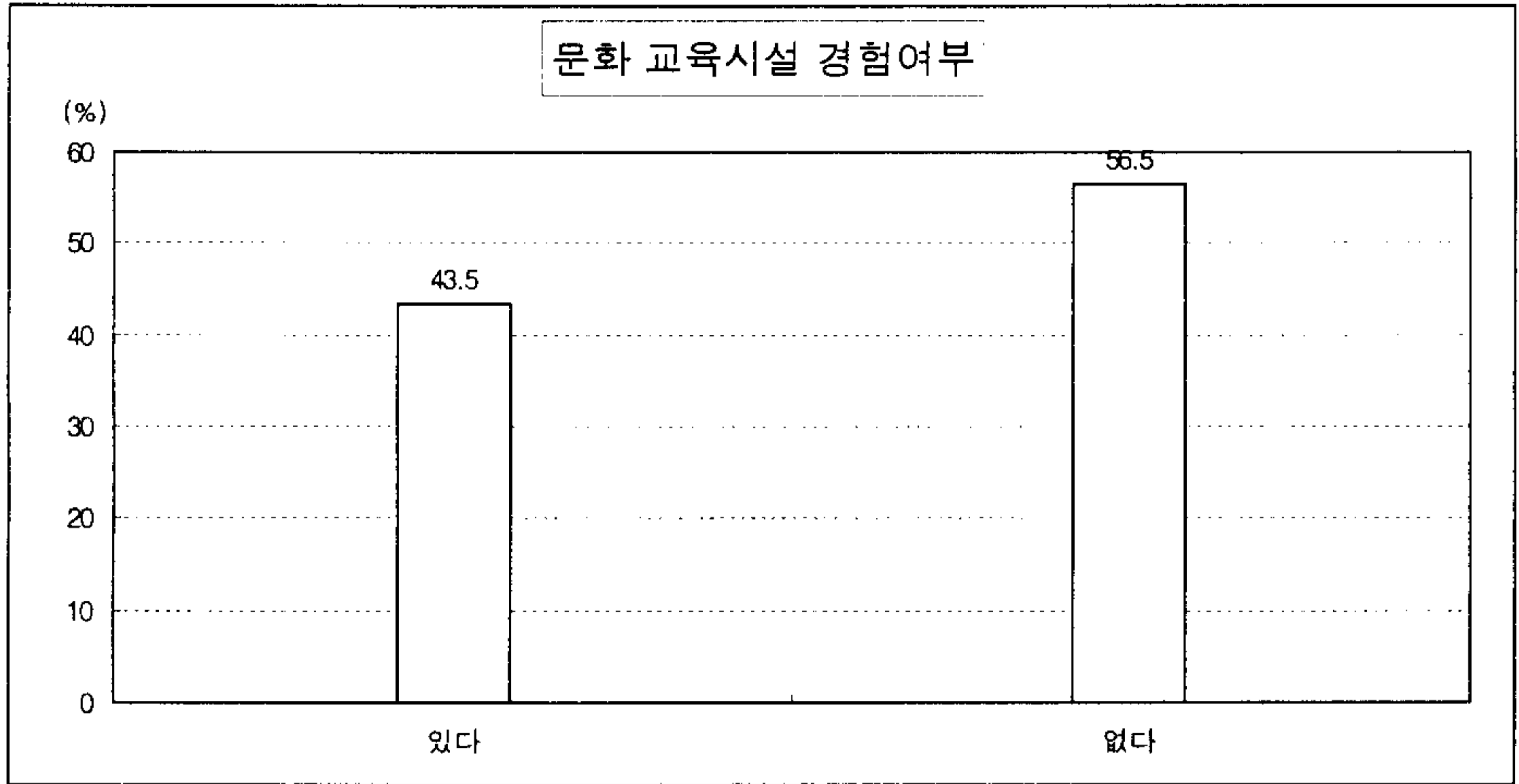
〈표 19〉 성공적 주민자치센터의 요건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참여 (40.7%), 기능을 갖춘 시설 (21.3%),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18.2%), 자치센터의 교육 (11.9%),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5.6%), 기타 (2.2%)로 응답했다.

11. 주위의 문화 교육시설(도서관, 문화센터)을 이용해 온 경험이 있는가?

〈표 20〉 문화 교육시설 경험여부



문화 교육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경험없다(56.5%), 경험있다(43.5%)로 응답하였다.

제4장 서구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제1절 서구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

1. 운영관리 계획수립 미비에 대한 문제점

주민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와 주민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기획, 운영 기반조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각 직능별로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또한 현 동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가 필요하며 구 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구청과 동의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즉, 책임자를 동장,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자는 사업지원전담공무원(1~2명)으로 하여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 후 자율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신규사업발굴과 자원봉사 강사는 물론 수준높은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이를 지원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 지원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운영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시설물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기본시설은 다목적 회의실, 탁아방, 미니도서관 등으로 하고, 사업시설은 각 동의 기초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알찬 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갖고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기초수요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1) 프로그램 시설 공간 선호도

- 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한문교실(18.3%), 수자침교실(17.9%), 교양강좌(17.1%),

등이 있는데 특히 교양강좌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② 가장 설치하기 원하는 시설에서 한방무료진료(47.8%)와 마을도서관(27.7%)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바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전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마을도서관 설치를 요구한다. 특히 대다수 주민들이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생활 축구, 배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다양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20.3%)를 위한 주민 참여프로그램 실천이 필요하다.

③ 공간부분에 있어 항상 주민들이 모여서 대화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만남의 장소인 주민사랑방 개설(32.1%)과 농산물 직거래장(32.2%), 그리고 중고품교환센터 설치(31.1%)를 원하고 있다.

(2) 주민참여도

프로그램과 시설, 공간 영역에 있어서 참여하겠다가 전체 66%이며, 34%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3) 자치센터 운영 목적

주민이 원하는 자치센터 운영 목적은 복지센터(34.6%), 문화센터(28.6%), 정보센터(19.8%) 평생교육센터(14.7%) 순으로 응답한 결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와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는 정보센터 기능을 포함하여 이러한 주민자치센터가 결국은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지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자치센터 운영주체

자치센터를 누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협의단체(35.6%)이며, 당분간 공무원과 주민연합체(34.4%)가 운영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주민 스스로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자치센터가 정착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행정의 지원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프로그램 운영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부(35.4%)를 중심으로 하고 청소년(18.9%)과 일반성인(20%)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6) 주민자치센터 이용하기 가장 좋은 시간에 보통 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47.4%), 청소년과 성인을 위해서는 오후 6시부터 8시 까지(27.2%)를 선호하며, 오후 6시 이후는 총 74.6%이므로 운영 시간대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응답결과를 종합할 때 일과시간 뿐아니라 일과시간 이후라고 자치센터 운영초기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향후 일과후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7) 컴퓨터 보유 여부

컴퓨터를 보유 비율에 대한 질문에 있다(65.5%)이며, 없다가(34.5%)인데, 아직도 지역정보화 지표가 낮은 비율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보사회를 위한 컴퓨터 보유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행정 전산화와 함께 지역 정보화를 주체적인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인터넷 이용여부

자주 이용하겠다가(32%), 나머지는 가끔(53.4%),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겠다(14.6%)이다. 실제 자주 이용하겠다가 32% 정도이기 때문에 정보사회에 대비한 인터넷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정보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9) 동의 기능전환후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청소(쓰레기)문제, (40%), 민원처리(22.9%), 사회복지(정책)(19%) 등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주변동을 3~4개 단위로 묶어서 청소처리 전담차량이 지원되는 쓰레기 기동처리반이 구성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문제는 현재 공무원 정원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제외한 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무원의 정원조정이 시급하다.

(10) 주민자치센터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민들 참여 (40.7%)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21.3%)이며, 기타 실제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18.2%)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범실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 하에 주민의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그 기능을 갖춘 시설에서 많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주민 자치센터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응답자들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갖춘 시설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62%가 응답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행정, 재정적 지원과 함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11) 문화교육시설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없다고(56.5%)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계획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7%가 이러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 문화 교육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나타난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제2절 서구주민자치센터의 정책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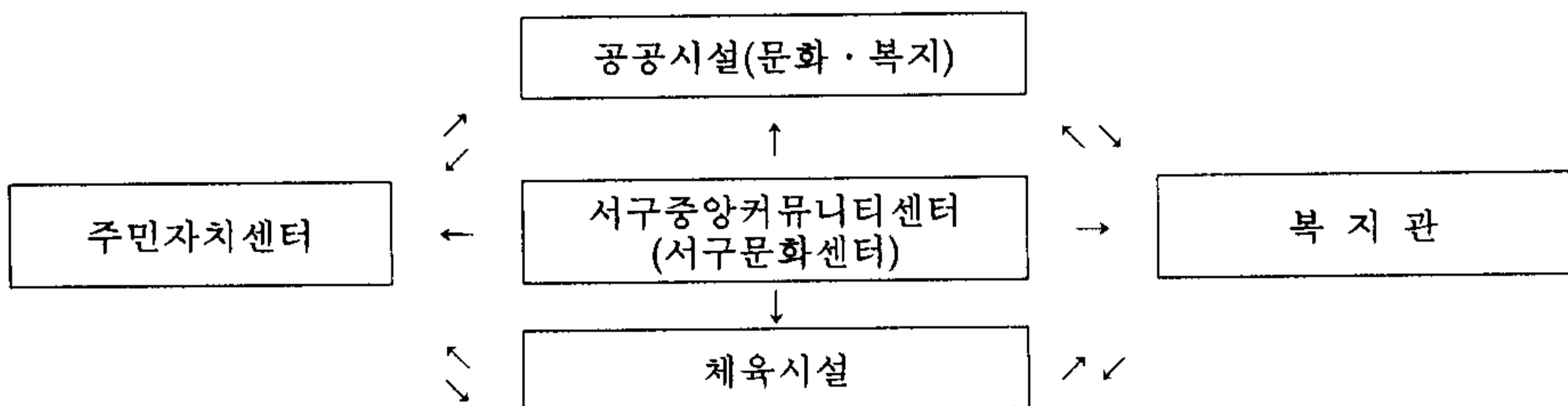
1. 서구문화센터를 중앙커뮤니티센터로 설정

서구문화센터를 중앙커뮤니티센터로 설정하여 주변 공공문화, 복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염주체육관, 상무시민공원, 조각공원, 시민중앙공원, 운천저수지, 여성회관, 5.18기념관, 학생회관, 서창향토마을, 사회복지관 등과 유기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표 21〉

서구문화센터는 서구의 중추적 커뮤니티 종합센터가 되어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과 주부 및 장애인 등 일반 성인들의 활용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 지역정보센터를 선도하는 전자도서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커뮤니티 시설과 주민자치센터



2. 서구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기능확대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와 함께 직접 자원봉사자인 활동가로서 참여도이다.

서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원봉사교육을 상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할 지역리더자를 양성하여 커뮤니티 현장활동가를 배출시켜야 한다.

〈표 22〉 서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99년 12월현재)

(단위 : 명)

구 분	일반인	가족단위	청소년	계
합 계	204	310	1,581	2,120

현 서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수는 매우 부족하다. 각동별 평균 163명이며, 대부분이 청소년이고 일반인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동사항 중 재가복지, 시설복지, 보건/목욕봉사, 환경, 청소년 선도, 이·미용서비스 등 기존에 방식에서 더욱 이를 확대,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와 지역단위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3. 자생적 주민자치 조직활용

특히 1차적 자원봉사활동가로 반사회 활성화가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반사회는 행정시책 홍보장이 되어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러나 반사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보교환, 이웃간의 친화와 친목도모 등을 통해 나누는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반사회보를 커뮤니티 뉴스레터로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소감을 나누는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서구 관내에 있는 다양한 자생조직을 조사하여 이를 활동영역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참여자치를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시범동(상무2동) 주민자치센터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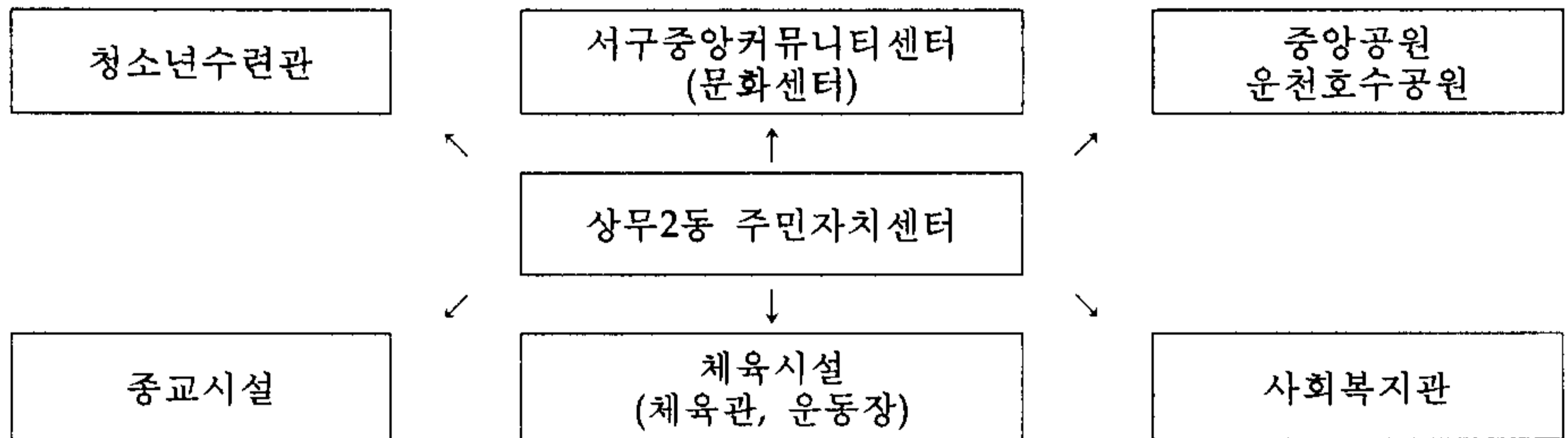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공공문화, 복지, 체육시설과의 네트워크 벨트 조성

- ① 상무2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기초수요조사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주민선호도를 기초자료로 하고 공익성을 위해서 반드시 운영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② 주민자치센터 주변의 공공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과 연계된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한다. 주민자치센터 자치프로그램 운영(시설내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시설외 프로그램의 현장성, 공동체성 형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중앙공원, 운천호수공원, 상무시민공원, 조각공원, 백석산산책로 등으로 연결해 문화, 여가, 휴식과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23〉

특히 중앙공원 - 운천호수공원 - 백석산산책로 등에 이어지는 주민 휴식 공간의 쾌적성을 위해 운천호수공원에 주민봉사센터를 만들어 상무2동 주민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청소, 환경오염 방지, 주민홍보 등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주민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 ③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인접한 염주체육관, 효광중학교, 체육관, 운동장, 상무중학교 운동장 그리고 소규모 체육행사는 동사무소앞 쌍학공원에서 실시하며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적당한 축구경기장 하나 없는 서구에서 극락강, 황룡강 수변지역 공원 둔치 등을 활용하여 축구경기장을 만들어 축구를 포함한 국민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 확대가 시급하다.
- ④ 청소년수련관과 쌍학공원 청소년 야외무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⑤ 사회복지관(쌍촌, 시영, 호남)과 연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 안정만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확대시켜야 한다.
- ⑥ 종교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개발, 복지, 환경 등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23〉 상무2동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 네트워크 모델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역특성과 구민 분포도에 입각한 주민자치센터의 모형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센터 형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2000년 최근에 완공된 마재근린공원에 있는 서구문화 센터와 커뮤니티 시설벨트를 형성한 다양한 시설공간과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 생활공동체 형성의 기본공간과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동사무소 공간을 기본구조로 하여 다양한 공간 활용의 대책과 그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주민자치센터는 초기 정보사랑방 기능을 위해 정보검색, 활용, 인터넷 및 컴퓨터 기초학 습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정보마인드를 확산은 물론 지역정보화 구축 기반에 그 목적을 두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운영문제는 초기에는 주민과 행정이 혼합하여 운영하는 복합형을 통해 자치센터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자생적으로 운영되기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는 프로그램의 참여와 운영과정에서 양성된 지역 리더자와 자원 봉사자를 통해 주민 중심의 주민주도형 자치센터 운영모델을 설정하였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본래 취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작은 정부실현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행정서비스체제 구축 그리고 단순히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문화, 정보, 복지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삶의 질 중심의 도시행정서비스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행정, 복지행정, 민원행정 등 주민자치센터가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넷째, 주민자치센터화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여 자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한 도시자치를 실천해야 한다.

특히 도시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간의 만남과 교류증진, 협동과 우애, 그리고 봉사과 헌신을 갖는 지역사회재조직화의 공간적, 심리적 중추의 재창조라는 깊은 인식하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만이 주민자치센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식, (1999), 한국NGO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동명사.

—— (1995), 인간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열린세상.

권순복, (1989), 「도시공동체사회의 형성과 발전방향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용하, (1985), 공동체에 대한 현대인의 추구, 공동체이론, 신용하편, 문학과 지성사.

오재일, (1999), 지방자치론, 전남대행정학과.

주성수, (1999.11), 「읍면동 자치센터의 발전방향」, 동기능전환과 커뮤니티형성, 지방행정연구소.

강형기, (1998. 5), 「주민복지센터의 기능과 운영체제」, 지방조직개혁세미나.

이달곤, (1995. 6), "행정계층구조 및 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한국사회사연구회, (1991), "한국의 도시문제와 지역사회", 문학과 지성사.

참여사회연구소, (1997),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 비평사.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소, (1987),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한길사.

광주광역시 서구, (1999),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읍·면·동의 기능전환방안(I).

광주·전남행정학회, (1999), 「주민자치센터모델개발」, 학술토론회자료집.

행정자치부, (1999. 9),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Calhoun, C. J, "Community : toward a Variable Conceptualization for Comparative Research", Social History 5. 1980.

Gidron. B. Kramer, M & Salamon, L. (1993).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 Emerging Relationships in Welfare States, San Francisco : Jossey - Bass.

Hillery Jr. G. A, (1955. 6),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Maclver, R. M, (1924), Community : A Sociological Study, Macmillan and co., Ltd. st. Martin Street. London. 제2장. "The Elements of communities"

Macpherson, C. B, (1977), The Life and Times of Liberal Democracy, Oxford : Oxford University

Mumford, Lewis, (1961), The city in History, NewYork : Harcourt, Brace a World.

松原治郎, (1975), 「コミュニテイの性格と意義」續 コミュニテイ 讀本 地方自治制度研究會(編), 東京, さようせり.

주민자치센터(동민의 집) 운영위한 기초조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관심으로 자치행정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위해 주민의 여론을 모아 다양한 기능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실시합니다.

21세기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성의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장 현 일 (☎ 368-2214)

1.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동민의 집)로 전환할 경우 동사무소의 공간구조 및 지역의 특수성과 주위여건과 비교하여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귀하의 의견을 각 문항에서 2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1,2 순위 표시)

기능	내 용	우선 순위
프로그램	①에어로빅 ②차밍디스코 ③미용강좌 ④피부관리 ⑤꽃꽂이 ⑥제과제빵 ⑦국악교실 ⑧노래교실 ⑨사진교실 ⑩수지침교실 ⑪바둑교실 ⑫서예교실 ⑬한글교실 ⑭교양강좌 ⑮주부대학교실 ⑯노인대학교실 ⑰한문교실	1위 () 2위 ()
시설	①한방무료진료 ②마을도서관 ③생활체육교실 ④레크리에이션교실 ⑤엄마자녀교실 ⑥현대경제교실 ⑦세무상담교실 ⑧댄스교실 ⑨장수민요교실 ⑩유아놀이교실 ⑪워드프로세서교실	1위 () 2위 ()
공간	①주민사랑방(만남, 회의장소) ②청소년 공부방 ③무료예식장 ④소음악감상실 ⑤농산물직거래장 ⑥중고품교환센터 ⑦교양강좌센터 ⑧인터넷부스센터 ⑨동아리(씨클)연수센터	1위 () 2위 ()

2. 주민자치센터(동민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귀하께서 다음 기능별 운영에 참여할 생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1번 문항 참조)

구 분	의 향				
	반드시참여	참여생각있다	반반	참여생각별로없다	전혀없다
(1) 프로그램 참여	← ①	②	③	④	⑤ →
(2) 시설 영역	← ①	②	③	④	⑤ →
(3) 공간 활용	← ①	②	③	④	⑤ →

3. 귀하가 사시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복지센터 ② 문화센터 ③ 정보센터 ④ 평생교육센터 ⑤ 기타()

4. 주민자치센터를 누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무원 ② 주민자치협의단체 ③ 전문가 ④ 공무원과 주민연합체
⑤ 기타 ()

5.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①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② 청소년(중·고 학생 등) ③ 성인(대학생 포함)
④ 주부 ⑤ 노인

6.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 ① 12이전 ② 12시 ~ 오후6시 ③ 오후6시 ~ 8시 ④ 8시 ~ 11시

7. 귀하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8. 만약 「주민자치센터」 내에 「인터넷」을 설치하면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자주 이용하겠다 ② 가끔 이용하겠다 ③ 이용하지 않겠다

9. 「주민자치센터」로 동의 기능이 전환된 후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쓰레기)문제 ② 사회복지(생보자)정책 문제
③ 도시건설(가로등, 도로보수) ④ 민원처리 문제 ⑤ 기타()

10.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치센터에 대한 교육 ② 주민들 참여 ③ 기능을 갖춘 시설
④ 운영 위한 행정재정 지원 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⑥ 기타()

11. 귀하가 사시는 주위의 문화·교육시설(도서관·문화센터)을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통계자료 처리를 위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나 이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결혼여부 ① 기혼() ② 미혼()
4. 가족 수 ① 4인 이하() ② 5인 이상()
5. 가족지위 ① 세대주() ② 주부() ③ 세대주이면서 주부()
④ 기타 가족원()
6. 주거지역 ()동
7. 거주기간 ① 1년 이내() ② 1~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
8. 주거형태 ① 주택() ② 아파트() ③ 기타()
9. 차량보유 ① 있음() ② 없음()
10. 학 력 ① 초등졸업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학생()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11. 직 업 ① 의사/변호사/전문직() ② 교사/교수직() ③ 관리/사무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공무원() ⑥ 농업() ⑦ 기타()